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19

07

유럽 박물관 기행

독일 드레스덴의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오페라 연출가 이외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
'마술피리'

커버스토리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ASSITEJ in Busan)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참가작 '진짜, 고래?'



제6회 **BNK** 부산은행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기념

SUMMER 나눔콘서트

BNK부산은행이 국내외 유명교수진의 재능기부와 참가비 전액 무료로 진행된
4박5일간의 음악캠프를 마치고 모두가 하나되는 SUMMER 나눔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18년 여름!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20일(금) 오후 7시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부산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하차)



예술총감독
오충근



관악지휘
이정생



현악지휘
다니엘 S김



협연
바이올린 이경선



현악 4중주
바이올린 양고운 · 임재홍
비올라 위찬주
첼로 이일세



목관 5중주
플루트 오신정 비순 윤상원
오보에 이윤정 호른 이석준
클라리넷 장재혁

Program

바르토크 / 루마니아 민속무곡 작품56
B. Bartók / Romanian Folk Dances Sz.56

로시니 / 오페라 세비야의이발사 서곡
G. Rossini / Opera 'The Barber of Seville' Overture

베토벤 / 교향곡 제5번'운명' 작품67
L.v. Beethoven / Symphony No.5 c minor Op.67 外 수곡

입 장 권 전석초대

신청방법 쌤뱅크 · 부산은행 홈페이지(PC·모바일) · 굿뱅크 선착순 접수

신청일자 2018. 7. 5(목) ~ 7. 19(목)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2018

김연우
콘서트
熱音會

2018. 07. 14 SAT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배급 : 다오뮤직, 달라잇컴퍼니주식회사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주식회사 공연마루
예매 : 클럽서비스, 부산문화회관, 인터파크
문의 : 051-607-6000

공연
예매
처

A l b é n i z

G i u l i a n i

S i b e l i u 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2회 정기연주회

열정과 냉정 사이

2018. 7. 6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알베니스 | 아스투리아스 (전설)
I. Albéniz | Asturias (Leyenda)

줄리아니 | 기타 협주곡 제1번
M. Giuliani | Guitar Concerto No. 1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5번
J. Sibelius | Symphony No. 5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지휘 최수열



기타 김우재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 (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 (10~30%할인) 및 학생단체 (3,000원권) ▶ 전화문의

▶ 셔틀버스 운행 (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제 4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Opera Festival

The 4th Eulsukdo Opera Festival 2018

2018. 7.5(목) ~ 7.21(토)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
세빌리아의 이발사

경상오페라단

7. 7(토) 오후 3시, 7시 30분

—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대구오페라하우스

7. 14(토) 오후 5시

—
로미오와 줄리엣

을숙도문화회관

7. 20(금)~21(토)

평일 : 오후 7시 30분

주말 : 오후 2시, 6시

—
사랑의 묘약

우나오페라단

7. 5(목)~7(토)

평일 : 오후 7시 30분

주말 : 오후 5시

—
팔리아치-광대들

더클래시코

7. 21(토) 오후 5시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경상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더(THE)오페라,
우나오페라단, 더클래시코

후원 | 티브로드,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익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대공연장 1만원, 2만원, 3만원 / 소공연장 1만원

예매처 | INTERPARK 1544-1555 www.ticketpark.com

공연문의 | 051)220-5805

2018 Summer Fantasy

1부
Bounce
허공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길잃은 철새
고추잠자리
그 겨울의 찻집
그대 발길이 머무는곳에

2부
산장의 여인
비련
못찾겠다 꾀꼬리
미지의 세계
Q
친구여
꿈
모나리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50년

여행을 떠나요

2018년 7월 26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전진



바이올린 정명아



기타 황보승



베이스기타 김대희



드럼 구명일

관람료 R석(1층) 20,000원 S석(2층) 10,000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6(시립합창단), 607-6074~5(정기회원)

할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외국인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8년 7월호 통권 319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6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ASSITEJ in Busan)
- 10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7월 공연캘린더
- 14 BACKSTAGE OPERA**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 ‘마술피리’
- 16 MUSEUM OF EUROPE**
독일 드레스덴의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 20 TRAVEL WITH YOU**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떠나는 초여름
- 25 PREVIEW**
- 34 ISSUE**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퀸틴 블레이크展 in 부산’
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 38 REVIEW**
- 40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52 SNS SUPPORTERS**
SNS 서포터즈 관람기
- 53 BOOK**
새로 나온 책
- 54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 61 INTERVIEW**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ASSITEJ in Busan)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올해 부산에서도 열린다.



7월 24(화)-25일(수), 28일(토)-29일(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
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패키지 2개 공연 예매시
40% 할인, 티켓 구매시 '퀸틴 블레이크'展
2천원에 관람가능)

일정 스페인 라롬베 무용단 '진짜, 고래?'
7월 24일(화) 오후 2:00 | 25일(수) 오전 11시, 오후 2:00
캐나다 퀘벡 극단 다이아모 '걸어서 하늘까지'
7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 29일(일) 오후 2:00
한국 이상한 짓 프로젝트 공연 '빨간입술 선생님의 소리로 보는 동화'
7월 24일(화), 29일(일) 오후 3:20, 25일(수) | 28일(토) 오후 12:20, 3:20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올해로 26회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매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해온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축제로 사랑받아왔다. 불어명인 '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Theatre pour l'Enfance et la jeunesse'의 약칭인 '아시테지(ASSITEJ)'로 더 많이 알려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는 1965년 파리에서 창립되었으며, 전 세계 83여 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로, 3,000명이 넘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 공연단체 및 예술인이 각국의 아시테지 본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아시테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연극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긴밀한 관계속에 정보교환 및 공연교류를 펼쳐오고 있다. 아시테지 한국본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동안 축제를 통해 30만여 명의 유료 관객과 전 세계 60개국 극단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전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2014년부터 4년 연속 문예진흥기금 지원 공연/시각 예술행사 부문 A등급(최고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출품작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면서 부산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아동·청소년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제26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열리는 기간인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스페인 라룸베 무용단의 3D 애니메이션 공연 '진짜, 고래?'와 캐나다 퀘벡 극단 다이나모의 아크로바틱 무용극 '걸어서 하늘까지', 그리고 라이브 동화 낭독 공연 '빨간입술 선생님의 소리로 보는 동화'를 만날 수 있다.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ASSITEJ in Busan)의 개막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진짜, 고래?'는 멕시코와 칠레의 전설과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된 작품으로, 영화를 보듯 3D 안경을 끼고 공연을 관람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치 극장이 바다 속인 듯 떠다니는 고래와 물고기, 별자리가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3D 안경 너머의 가상현실 무대와 무용수들이 환상처럼 펼쳐내는 옛 이야기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게 만든다. 공연은 7월 24일 오후 2시와 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등 모두 세차례 펼쳐진다.

퀘벡 드라마센터 관객 선정 최우수 공연 수상작인 '걸어서 하늘까지'는 화려한 움직임과 음악, 그리고 상상력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아크로바틱 음악극으로, 하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화려한 아크로바틱과 우아한 클래식 선율의 조화 속에서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극단 다이나모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크로바틱극과 서커스극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왔다. 공연은 7월 2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29일 오후 2시 세차례 펼쳐진다.

공연 관람 후 소극장 로비에서는 보이스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1인 라이브 동화 낭독 공연 '빨간입술 선생님의 소리로 보는 동화'가 이어진다. 무성영화시대의 해설자인 변사(辯士)를 모티브로, 그림 동화 영상에 음향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소악기를 라이브로 연주하며 소리를 통해 동화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고, 문학작품이 갖는 정서를 그대로 전달한다. 소리로 보는 동화는 7월 24일과 29일에는 오후 3시 20분, 25일과 28일에는 12시 20분과 3시 20분 등 전 작품 관람 직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축제기간 동안에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화 작가로 유명한 영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퀴턴 블레이크(Quentin Blake)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 '퀴턴 블레이크展'이 함께 펼쳐지면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유쾌한 문화놀이터를 제공한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7월 해외아동청소년 예술축제를 개최하며 앞으로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SSITEJ in Busan



07

2018 JULY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u>1</u></p> <p>원스트링 챔버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중 전석 1만원 원스트링 챔버(010-4550-9961)</p>	<p><u>2</u></p>	<p><u>3</u></p> <p>UKO 오케스트라 제43회 사랑 나눔 연주회 19:30 대 전석 2만원/UKO 오케스트라(988-3087)</p>
<p><u>8</u></p> <p>음악연극 '행복을 찾아서' 19:30 중 무료(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함) 극단디딤돌(02-766-9793)</p>	<p><u>9</u></p> <p>음악연극 '행복을 찾아서' 16:00, 19:30 중 무료(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함) 극단디딤돌(02-766-9793)</p>	<p><u>10</u></p>
<p><u>15</u></p> <p>라온제나심포니오케스트라 2018 Concert of Concerto 18:00 중 무료/라온제나심포니오케스트라 (010-9507-9090)</p>	<p><u>16</u></p>	<p><u>17</u></p> <p>부산예술고등학교 2018 예술제 '제31회 무용정기공연' 19:0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p>
<p><u>22</u></p>	<p><u>23</u></p>	<p><u>24</u></p> <p>2018년 브니엘 무용 발표회 19:30 대 초대/브니엘예술고등학교(582-7671)</p>
<p><u>29</u></p>	<p><u>30</u></p>	<p><u>31</u></p>



WED	THU	FRI	SAT
-----	-----	-----	-----

<p>4</p>	<p>5</p> <p>제4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기념 그랜드 갈라 콘서트 19:30 대 5만원 · 3만원 · 1만원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의(010-9168-9434)</p> <p>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솔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19:30 중 R석 15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이환석 클라리넷 귀국독주회 19:30 전 2만원 · 1만원/이환석(010-6284-6357)</p>	<p>6</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2회 정기연주회 '냉정과 열정사이' 19:30 대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솔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19:30 중 R석 15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7</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_2.주(酒)' 17: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	---

<p>11</p>	<p>12</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19:30 중 부산MBC(760-1126)</p> <p>소프라노 설은경 귀국 독창회 19:30 전 전석 2만원 아트매니지먼트 이랑(010-9338-8485)</p>	<p>13</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19:30 중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p>14</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김연우 콘서트 '熱音會' 19:00 대 12만1천원 · 11만원 · 9만9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한얼정악연구소 제22회 정기공연_정인경의 특별무대 '시조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 17:00 중 초대/한얼정악연구소 (010-3870-8597)</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17:00 전 전석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	---	---	---

<p>18</p>	<p>19</p> <p>◆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창작뮤지컬 '상사화'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8 여름마당춤축제 '댄스 유토피아' 20:00 아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20</p> <p>◆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창작뮤지컬 '상사화'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손창용 클라리넷 독주회 19:30 전 무료/손창용(010-6626-2396)</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8 여름마당춤축제 '댄스 유토피아' 20:00 아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21</p> <p>바리톤 고성현 with 소프라노 한경미 사랑의 불을 노래하다 18:00 대 10만원 · 7만원 · 5만원 (주)라엘엔터테인먼트(1544-3460)</p> <p>◆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창작뮤지컬 '상사화' 17:0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	--	--	--

<p>25</p>	<p>26</p> <p>◆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8 써머 판타지-가요합창음악회 '조용필의 50년, 함께 여행을 떠나요' 19:30 대 2만원 ·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27</p>	<p>28</p> <p>제16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8:00 대 무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5634-748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윈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 14: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	--

전시실

르네주 특별전 '시선이 아닌 마음으로 치료하는 그림'
 7월 20일(금)-7월 27일(금)
 추성진(010-9339-6206)

07

2018 JULY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1</p> <p>2018 페스티벌 뮤지컬 '숲의 요정 페어리루' 전국투어-부산 11:00, 14:00 대 5만원 · 4만원 · 3만원 (주)엠플러스(1544-3901)</p> <p>7월의 향연 18:00 소 무료 청 · 흥 · 동 예술단(010-2828-9085)</p>	<p>2</p>	<p>3</p> <p>제7회 부산동래아리랑제 19:00 대 부산동래아리랑제(010-8533-8261)</p>
<p>8</p> <p>2018 치펜데일 쇼 내한공연 17:00 대 13만원 · 11만원 · 8만원 일간 리더스경제신문사(996-2054)</p> <p>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11:00, 14:00 소 전석 3만5천원 피터폴앤메리(02-2637-7179)</p>	<p>9</p>	<p>10</p>
<p>15</p>	<p>16</p>	<p>17</p> <p>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발레컬 '운수좋은 날' 14:00 대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청소년 성매매 예방 뮤지컬 '바람의 나라' 14:00 소 무료/부산연극제작소 동녘(010-7168-2791)</p>
<p>22</p>	<p>23</p>	<p>24</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진짜, 고래?' 14:00 소 3만원 · 2만원 ·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소리로 보는 동화' 15:20 [로비] 소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29</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걸어서 하늘까지' 14:00 소 3만원 · 2만원 ·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소리로 보는 동화' 15:20 [로비] 소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30</p>	<p>31</p>

WED	THU	FRI	SAT
<p align="center"><u>4</u></p>	<p align="center"><u>5</u></p> <p>2018 치펜데일 쇼 내한공연 20:00 대 13만원 · 11만원 · 8만원 일간 리더스경제신문사(996-2054)</p>	<p align="center"><u>6</u></p> <p>2018 치펜데일 쇼 내한공연 20:00 대 13만원 · 11만원 · 8만원 일간 리더스경제신문사(996-2400)</p>	<p align="center"><u>7</u></p> <p>2018 치펜데일 쇼 내한공연 17:00 대 13만원 · 11만원 · 8만원 일간 리더스경제신문사(996-2400)</p> <p>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5천원 피터폴앤메리(02-2637-7179)</p>
<p align="center"><u>11</u></p>	<p align="center"><u>12</u></p>	<p align="center"><u>13</u></p> <p>제2회 사랑의 콘서트 18:00 대 초대/뽕짝엔터테인먼트(624-5078)</p>	<p align="center"><u>14</u></p> <p>2018 사랑을 노래하는 목소리에 빠지다 17:00 대 초대/이안오케스트라(010-4817-9645)</p>
<p align="center"><u>18</u></p> <p>◆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발레컬 ‘운수좋은 날’ 14:00, 20:00 대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청소년 성매매 예방 뮤지컬 ‘바람의 나라’ 14:00 소 무료/부산연극제작소 동넵(010-7168-2791)</p>	<p align="center"><u>19</u></p>	<p align="center"><u>20</u></p>	<p align="center"><u>21</u></p> <p>2018 혁오 전국투어-부산 ‘24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 18:00 대 9만9천원 · 8만8천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p>
<p align="center"><u>25</u></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진짜, 고래?’ 11:00, 14:00 소 3만원 · 2만원 ·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소리로 보는 동화’ 12:20, 15:20 [로비] 소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 align="center"><u>26</u></p>	<p align="center"><u>27</u></p>	<p align="center"><u>28</u></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걸어서 하늘까지’ 11:00, 14:00 소 3만원 · 2만원 ·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_아시테지 in Busan ‘소리로 보는 동화’ 12:20, 15:20 [로비] 소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작가 퀴틴 블레이크 7월 7일(토)-9월 30일(일) 일반 8천원 · 초중고생 3천원 · 미취학아동 2천원 · 36개월 미만 유아 무료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천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p>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파이프 오르간을 무대장치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 ‘마술피리’

66

콘서트홀인 무대정면 벽에 파이프
오르간을 무대 세트 및 효과로
써보려구요, 그게 이 공연장의
아이덴티파이가 될거예요!

99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전경

한국에 귀국해보니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오페라 ‘마술피리(Die Zauberflöte)’가 전국적으로 일 년 내내 열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국민 오페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사실 ‘Zauber’라는 뜻을 보면 ‘마술피리’라기 보다는 ‘신비한 피리, 황홀한 피리’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데 이미 영어 ‘The Magic Flute’, 이탈리아어 ‘Il Flauto Magico’를 ‘마술’이라 해석하면서 ‘마직’이라는 번역이 들어온 터라 한글 제목을 다시 바꾸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마술피리’는 징슈piel(Singspiel : Sing 은 노래하다, Spiel은 말하다의 독일어로 노래하며 말하는 형태의 오페라를 뜻함)로서 첫 장면에 큰 뱀이 나오는 동화같은 이야기에 극중간 동물들이 나와 춤을 추는가 하면 파파게노의 익살스런 장면과 불과 물의 시련 장면 등 신기한 장면들이 많아 가족 오페라로 우리에게 인기가 많다. 연출가의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 교권과 왕권, 인간 탐욕에 관한 갈등 등 해석하기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것을 가족 오페라로 제작하려다 보니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아무튼 이 작품의 줄거리는 상당히 길고 복잡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밤의 여왕의 부탁으로 먼 나라의 왕자 타미노는 마술피리를 받아 들고 여왕의 딸인 공주 파미나를 구하러 가게 된다. 갈 때는 파미나를 가둔 자라스트로가 악마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여왕이 악의 근원이고 파미나를 데리고 있는 철학자 자라스트로는 선한 의인이었다. 타미노는 그 선한 의인의 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함께 간 새잡이 파파게노와 함께 침묵 수행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파미나와 함께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



Wolfgang Amadeus Mozart



한다. 짝이 없어 슬퍼하던 파파게노도 자기에게 꼭 어울리는 파파게나를 만나 행복해지고, 타미노와 파미나가 시련을 통과하자 어둠이 물러나 밤의 여왕의 세계는 무너지며 막을 내린다.

그동안 '마술피리' 작품만 2천석이 넘는 대극장에서부터 300석 규모의 중극장까지 무려 8개의 극장과 프로덕션에서 50여회 가량 다양하게 무대 연출을 맡았으니, 개인적으로 모차르트에 감사해야겠다. 이 작품 말고도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등도 많이 했으니까... 하하하~

이 작품은 피라미드라는 구조를 통해 이해하면 된다. 3명의 시녀-정확히는 시녀라기 보다 귀부인이 많다. 여왕의 시중을 드는 여인들이라 시녀라 부르는데 DAME라는 배역은 여왕 가장 가까이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체 높은 귀족부인들을 얘기한다-. 3명의 천사, 3개의 문, 3번의 시련(시험) 등 3이 주는 완전성을 기본으로 하여 음악에서도 3도 화음 진행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그 상징들을 통해 보물찾기 하듯 그 의미들을 찾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오페라 연출의 이해'를 강의하게 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요청으로 그해 5월, '마술피리'의 연출을 의뢰받게 되었다. 당시 음악대학 내에 자리한 '김영의홀'이라는 콘서트 전용 연주홀에서 오페라 공연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정면 무대 벽에 당당하게 버티고 있어서 이전 공연까지는 그 오르간을 롤 스크린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공연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발상을 달리 해 은빛 나는 멋진 오르간을 무대장치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참, 여자대학교에서 남자 없이 어떻게 오페라를 무대에 올릴까? 남자배역은 서울 수도권, 아니 전국적으로 오디션을 거치는데 이른바 여자대학교에서 데뷔무대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근처 연세대학교에서부터 내가 공부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의 남학생들이 용병이 되어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러다 보니 작품을 하다 커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번에도 몇몇 커플이 탄생했다(지금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지는 확인은 안되지만...). 5년 전 성신여자대학교 강의를 나갈때도 '마술피리'를 공연했었는데 그때도 경희대학교, 한양대학

교 남학생들이 함께 출연했다. '마술피리'는 아무래도 여성 배역이 워낙 많아서 여자대학교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유명한 밤의 여왕 역할부터 실질적인 여주인공 파미나, 깜찍하고 귀여운 파파게나, 3명의 귀부인(시녀) 등 여성배역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 때 더블, 트리플 캐스팅하면 아주 많은 여대생들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무대로 돌아와 나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은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에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공간에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까지 무대로 흡수 시켰다. 모두들 처음에는 어색할거라 말렸지만 나는 극에서 주는 음악의 힘과 조명의 효과로 파이프 오르간의 그 장중한 사운드가 주는 극적 임팩트를 실행할 수 있었다. 극장 공간속에 있는 여러 사물들의 활용을 통해 종합 예술인 오페라를 만드는 작업이야 말로 매력있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번에 나는 9월에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 한국 오페라 초연 70주년 기념 베르디(1813-1901)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의 연출을 의뢰받았다. 공연장에서는 오래전 작품을 한 적이 있지만 로비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시도이다. 요즘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 또 생각중이다.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휘감은 로비와 특히 사방으로 둘러싸인 2층 발코니와 베란다 구조는 매우 아름다워 연출가로서는 한번 시도해 볼만한 멋진 곳이다. 2년 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극에 투영된 것처럼 이번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 비올레타의 사랑을 그려낼 것이다.

'마술피리' 공연 장면



독일 드레스덴의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글·사진 김성민 (주)유료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예술가는 괴팍하다?

유럽 유학시절, 유명 연주자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미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가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이 학생은 얼마 전 컨디션 조절을 실패하는 바람에 무대 위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 이후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학생의 질문에 유명 연주자는 자신의 컨디션을 위해 매일하는 연습과 운동, 식습관들을 말해주었는

데 자신은 1시간의 공연을 위해 한 달의 시간을 투자한다며 무대에 오르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인기와 영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멋진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대 위에서의 압박감과 준비기간의 엄청난 스트레스는 연주자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아야하는 연주자들이 조금 독특하고 예민하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매우 종교적이고 바른 생활을 했던 바흐도 라이프치히의 커피전문점에서 시간에 쫓겨 작곡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

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고(작곡가 가운데 최초의 카공족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연주자에게 모욕적인 욕도 했었다. 베토벤이 수차례 집을 이사했던 이유도 그의 괴팍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음악을 전공했었고 공연의 스트레스를 잘 알기에 어느 정도 예술가들의 까칠함을 이해하는 편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 (Raffaello Sanzio da Urbino 1483~1520)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기록한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 이탈리아 화가, 건축가)는 라파엘로에 대해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한다.

“조물주께서 가끔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행운을 한 사람에게 모두 주는 경우가 있는데 라파엘로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실제 라파엘로는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았으며 얼굴도 무척 아름다웠다고 한다. 20대의 라파엘로는 당시 문화의 중심 피렌체에서 대선배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교류를 했고 26세 때 바티칸 교황청의 전격적인 부름을 받아 ‘아테네 학당’과 같은 위대한 그림을 그려나간다. 이후 라파엘로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한 성격으로 괴팍한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었고 죽음을 눈앞에 둔 교령의 교황 율리우스 2세(Pope Julius II 1443~1513)로부터 마지막 주문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편에서 싸워준 피아첸차(Piacenza)라는 도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성당 중앙 제단화였는데 오늘 소개하는 독일 드레스덴의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시스티나의 마돈나’라는 작품이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성모자 시스티나의 마돈나(Madonna Sistina)

고전 회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천사들은 학창 시절에 필통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통통한 몸과 천진난만한 표정은 각박한 심리상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여행자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상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두 명의 천사는 ‘시스티나의 마돈나’라는 대형 작품의 일부뿐이고 라파엘로의 이 작품은 1754년 작센의 아우구스투스

3세에게 팔려 이탈리아에서 드레스덴으로 옮겨진 이후 19세기 유럽에서는 가장 유명한 라파엘로의 그림이 되었다.

원래 그림이 있었던 피아첸차의 성당에는 성 식스투스스와 성 바르바라 성녀의 유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그림의 좌우에는 두 명의 성인들이 등장한다. 왼편의 성 식스투스스의 얼굴은 당시 의뢰자인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모습으로 그렸는데 인간과 신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시선은 성모자에게 향하고 손은 죄인인 감상자를 향하고 있다. 즉 성모자를 바라보며 불쌍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자비를 요청하는 것이다. 오른편의 성녀 바르바라는 특이하게도 신을 바라보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귀여운 천사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1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Gemäldegalerie Alte Meister)

2 라파엘로 ‘시스티나의 마돈나(Madonna Sistina)’





19세기에 이 작품을 감상한 많은 사람들은(괴테, 니체, 프로이트, 하이데거, 헤겔 등) 중앙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는데 그림 가장 위쪽에 연극적인 커튼이 열리며 압도적인 크기와 위엄을 가진 성모 마리아가 감상자를 쳐다보는 모습은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두려운 마음까지 안겨주었다고 한다. 사실 이 작품은 따뜻한 성품의 라파엘로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해석되는 작품이다. 라파엘로는 성스럽고 압도적인 성모의 모습을 감상자들이 바로 바라보면 놀랄까봐 그림의 가장 아래쪽에 귀여운 천사 두 명을 먼저 그린 것이다. 감상자는 자신의 눈높이에 위치한 귀여운 천사들을 먼저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이후 천사들의 시선을 따라 역시 천사들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 오른쪽 성녀를 쳐다보게 된다.(여기서 성녀가 신이 아닌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 진다.) 그리고 감상자는 자신을 지목하는 왼쪽의 성인을 바라보고 그 성인의 시선을 따라 마침내 그림의 주인공인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이런 기법은 시간이 흘러 인상주의 화풍의 르누아르가 즐겨 썼던 기법이다.) 자신의 실력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까지 배려해주는 라파엘로는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의 정신을 잘 대변해주는 따뜻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다.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 나의 선택을?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한다. 마스터 클래스를 마치며 70대의 거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항상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지만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는 지금도 긴장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자신은 긴장하면 항상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게 되었다.(참고로 그 분은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대의 거장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자의 무대 위에서 살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스트레스를 거침없이 표현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사람도 있는데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스트레스 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라파엘로의 성품과 그가 그린 두 명의 천사를 기억하며 인생이라는 자신의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



- 3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이 있는 드레스덴 츠빙거 궁전(Zwinger Palace)
- 4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너머 멀리 드레스덴 오페라 하우스가 보인다.
- 5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내부

테마가 있는 여행

삼국유사의 고장
／
군위로 떠난
초여름 여행



일년 중 농사일로 가장 바쁜 시기라는 망종(芒種)도 지나고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6월 8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6월에 떠나는 테마여행지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특히 군위는 처음 방문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이라 출발 전부터 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삼존석굴



삼존석굴



한밤마을

테마여행이 있는 6월 8일, 이른 아침에도 여행을 떠난다는 설레임으로 한껏 상기된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금요일 출근길에도 별다른 막힘없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가족, 친구들과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회원들의 정담이 계속 이어졌다.

세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거대한 자연 암벽을 뚫어 만든 군위 삼존석굴. 오늘 하루 군위여행을 함께 해줄 문화유산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군위 삼존석굴은 '제2의 석굴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경주 석굴암보다도 100여 년 이상 앞서서 석굴사원의 효시로, 불교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라의 불교 공인(법흥왕) 전 꺾박반던 시대에, 숨어서 오로지 불심으로만 수도하던 곳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자연동굴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관음보살이 온화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삼존석굴은 몇해 전까지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었으나 훼손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1년에 한번 석가탄신일에만 개방된다고 한다. 직접 눈 앞에서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아름다운 돌담으로 유명한 대울리 한밤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삼존석굴과 바로 지척에 자리한 한밤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옛 정취를 풍기는 고가와 재실, 자연석 돌담, 성안 숲과 제방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특히 한밤마을을 상징하는 담장은 경오(1930)년 대홍수로 떠내려온 돌들로, 전통가옥들과 조화를 이루며 매우 예스러운 골목길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돌담 위로는 산수유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은행나무가 많은데 특히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가는 산수유 열매가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면서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해설사의 안내로 돌담길을 따라 걷자 마을 안길에 자리한 대울사(大栗寺)가 회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 곳에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인 보물 제988호인 '군위 대울동 석불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대울사를 나와 조금 더 걷자 특 트여진 공간에 한밤마을이 내세우는 또 다른 자랑거리 대청(大廳)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조선 초기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 타 없어졌던 것을 1632년(인조 10년) 중창해 학사(學舍)로 사용되다 요즘은 마을의 노인정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바로 인근에는 남천고택(南川古宅)이라고도 불리는 군위 상매덕(上梅宅)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 현종 2년(1836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매덕은 부림

테마가 있는 여행

홍씨(岳林洪氏)의 집성촌인 한밤마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가옥으로, 지금도 후손이 이 곳에 살고 있어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남천고택을 마지막으로 가보지 못한 돌담길은 다음을 기약하며 오후 일정을 위해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유명한 화본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화본역전에 자리한 식당에서 든든히 속을 채운 정기회원들은 2010년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된 화본역을 둘러봤다. 지난 2011년 새롭게 단장된 화본역은 1936년 지어진 화본역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행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꾸몄다. 물을 끌어 달리던 증기기관차를 위해 세워진 25m 높이의 거대한 급수탑을 배경으로 하루 6번밖에 정차하지 않는 기차길에서 사진도 찍으며 기차역의 낭만을 맘껏 만끽했다. 화본마을의 또다른 명소는 바로 추억박물관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마을 내 폐교된 산성중학교에 조성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는 포니 픽업트럭과 흑백 텔레비전, 타자기, 다이얼전화기 등 추억을 부르는 옛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에는 추억의 교실, 상점, 만화방 등 1960~70년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옛 골목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있어 회원들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옛날을 추억하며 그 때 그 시절을 즐겼다.

군위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가 탄생한 천년사찰 인각사.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으며, 그 후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입적할 때까지 5년 동안 머물렀던 유서깊은 절이었으나 현재는 명부전과 산령각, 국사전만이 남아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일연선사 생애관이 개관하면서 삼국유사 편찬에 대한 내용과 인각사 연혁, 일연스님 행적, 출토된 유물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인각사에는 중요문화재로 보물 제428호로 지정된 인각사보각정조지탑 및 보각국사비가 남아 있다. 일연스님이 입적한 지 6년 만인 충렬왕 21년(1295)에 세워진 이 탑비는 당시의 문신이며 문장가였던 민지(閔漬)가 짓고, 글씨는 왕우군(王右軍), 곧 왕희지의 행서를 집자해서 비문을 새기는 등 공들였지만 지금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되었다.

“당시 왕희지의 글씨를 탐낸 이들이 앞다투어 탁본을 해가면서 훼손이 심해진데다,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파손을 자행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원본은 알아보기 힘들지만 다행히 여기저기 전해지는 탁본을 바탕으로 2006년 일연선사 탄생 800주년을 기념해 재현한 비석이 세워져 있어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일연스님의 자취가 서린 인각사를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군위는 오랫동안 회원가족들의 가슴에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추억박물관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한밤마을 대청

8.10 ㉟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한국 유교문화의 뿌리인 소수서원과 선비촌에서의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있는 부석사, 소백산예술촌을 돌아보는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2:00 영주 도착, 점심식사
- 13:30 소수서원, 선비촌 탐방
- 15:30 소백산예술촌 도착, 부석사 탐방
- 19:00 저녁식사, 모듬북 배우기, 캠프파이어
- 22: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양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시고,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7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상윤(남구 유엔평화로)

김은의(남구 분포로)

김철호(수영구 과정로)

문정임(남구 황령대로)

박애경(연제구 월드컵대로)

박은아(해운대구 해운대로)

윤영기(남구 유엔평화로)

이영인(사상구 학감대로)

조상혁(남구 석포로)

황춘자(사하구 감천로)

기존 회원

공임순(부산진구 만리산로)

박경자(수영구 황령대로)

박호정(영도구 절영로)

신혜숙(연제구 법원북로)

이영수(양산시 평산로)

이효정(연제구 반송로)

정은영(기장군 산단4로)

조경란(영도구 절영로)

조은숙(사하구 다대로)

최정현(동구 초량북로)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람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을숙도문화회관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을숙도 오페라축제는 특히 문화 소외지역으로 알려진 서부산권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오페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부산 오페라 인구의 저변확대에 앞장서 왔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상오페라단, (재)대구오페라하우스, 더(THE)오페라, 우나오페라단, 더클래시코 등 부산, 경남, 대구지역의 5개 오페라단이 출연, 지역 오페라단들의 눈부신 저력을 보여준다.

7월 5일과 6일, 오페라 축제의 서막을 여는 우나오페라단(단장 데이비드 박)은 다른 오페라들에 비해 가볍고 유쾌해 오페라 입문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7일에는 지난해 '제3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에 도니제티의 '돈 파스칼레'로 참가, 그 해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경상오페라단(단장 최강지)은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관객과 만난다. 극작가 보마르세의 희극 3부작 중 1부인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연인들의 삼각관계를 경쾌하고 재치있게 풀어내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오페라전문극장인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배선주)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는 7월 14일 무대에 오른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관람연령을 만 5세 이상

제4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펼쳐지는
오페라의 향연, 제4회 을숙도 오페라축제가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으로 낮추는 한편, 전체 공연시간을 80분 정도로 줄이고 주요 곡은 원어로, 노래 중간에 들어있는 대사는 한국어로 바꾸어 어린이들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

7월 20일과 21일에는 더(THE)오페라(대표 변영희)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무대에 오른다. 구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을숙도문화회관이 특별 제작한 작품으로, 젊은 연인의 순수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아

름답게 그려낸다.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김일택 대표가 제작을, 경성대학교 김원명 교수가 예술감독, 김지용씨가 연출, 이소영씨가 음악감독,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가 연주를 맡았으며, 로미오 역에 서필, 문한솔, 전병호가, 줄리엣 역에 이운경, 김신희, 김나영이 출연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련의 노래를 들려준다. 오페라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친근한 클래식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더클래시코(대표 현미경)가 선보이는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광대들)', 사랑과 질투, 복수 등 인간사의 감정과 사건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탈리아 베리즈모(Verismo)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한국에 숭혼합학교 출신과 해외파 성악가로 구성된 실력과 출연진들의 다이나믹한 아리아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감동을 전한다.

을숙도 오페라축제

일시 7월 5일(목)-7월 21일(토) 장소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소공연장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프리뷰

열정과 냉정 사이



지휘 최수열



기타 김우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2회 정기연주회

열정과 냉정 사이

표현력 있는 음색과 열정적인 연주로 청중을 압도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우재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2회 정기연주회 '열정과 냉정 사이'가 7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우재의 협연으로 클래식 기타의 레퍼토리 중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알베니스 '아스투리아스(전설)'와 세계 최초의 기타협주곡인 줄리아니의 '기타협주곡 제1번', 핀란드의 국민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첫 곡인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작곡가 알베니스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작곡한 '전주곡(Preludio)'이 원곡으로, '현대 기타음악의 개척자'라 불리

는 프란시스코 타레가에 의해 기타 작품으로 편곡되면서 기타 특유의 아르페지오 등의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현재는 원곡보다 더 많이 연주되고 있다. 19세기 기타의 가장 줄리아니는 당시 기타에 대한 식었던 대중의 흥미를 그의 기교적인 연주와 작곡, 교육을 통해서 독립으로 다시 부흥시킨 작곡가이다. '기타 협주곡 제1번'은 그가 남긴 총 3곡의 협주곡 중 가장 유명한 곡으로, 줄리아니의 연주를 감상한 악성 베토벤이 그의 연주에 도취되어 '기타는 그 자체가 작은 오케스트라'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협연자 김우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악대학에서 수학하며 독일을 거

점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오다 지난 2001년 1월,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의 데뷔 독주회로 국내 무대에 정식 데뷔한 후 그동안 수차례 독주회와 초청공연, 실내악 활동을 통해 기타가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연주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김우재는 현재 현대음악앙상블 CMEK와 Korea Japan Guitar Octet, Music Coop, Estro Duo 동인으로 활동 중이며 성남국제기타페스티벌 SIGF, SIGF ENSEMBLE 음악감독 및 한국기타연주가협회 부회장으로

재직중이다.

마지막 곡인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5번'은 시벨리우스가 50번째 생일을 맞던 지난 1915년, 그의 생일을 기념하고자 했던 핀란드 국가로부터 위촉받아 작곡한 곡으로, 그 해 그의 생일날인 12월 8일 자신의 지휘로 열렸던 초연무대는 성공적이었으나 스스로 곡이 미흡하다 생각했던 시벨리우스는 1916년과 1917년에 이어 1919년 3번째 개정판을 발표했는데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은 이 3번째 수정본이다. 시벨리우스는 이 곡을 그의 고향인 예르벤페의 호숫가에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백조들로부터 큰 영감을 받아 작곡했는데, 곡 전반을 통해 핀란드의 광활한 자연을 떠올릴 수 있다.

일시 7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노자와 베토벤



‘노자와 베토벤’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수차례의 무대로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을 통해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왔다. 2018년 올해는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순우리말인 ‘고주망태’를 새로이 해석하여 ‘외로워서(孤) 술(酒) 한 잔 하고, 잊고(忘) 싶으나 결국 자신이 택할 마지막 태도(態)는 무엇인지’를 묻는 ‘고주망태(孤酒忘態)’를 주제로 제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감과 위로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2015년부터 공연을 이끌어온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우리 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지난 3월 첫 번째 무대 ‘고(孤)’에 이은 두 번째 무대 ‘주(酒)’로, 오랫동안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어준 술(酒)을 주제로 음악과 철학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2.주(酒)’

—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두 번째 무대가 7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1부 무대에서는 유려하면서도 몽환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시작으로 현실에 대한 만족과 인생에 대한 찬미, 희망찬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긴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술, 여자, 그리고 노래’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2부 무대에서는 판소리명창 배일동의 협연으로 평생을 술을 가까이 한 것으로 알려진 시선(詩仙) 이백의 권주가 ‘장진주(將進酒)’로 문을 연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인 배일동 명창은 뒤늦게 소리에 입문, 7년간 지리산에서 들은 소리꾼으로, 판소리에 재즈, 서커스,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우리국악을 세계에 알려졌다. 특히 호주 출신의 재즈 명인 사이먼 바커, 스코트 킥클러와 함께 프로젝트 그룹인 ‘지리’를 결성, 판소리와 재즈를 접목한 공연을 선보이면서 미국, 독일, 터키, 이스라엘 등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마지막 곡으로는 춤과 축제를 연상시키는 듯한 역동적인 리듬감과 과감한 전개가 돋보이는 베토벤의 제7번 교향곡 3악장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공연장소를 중극장으로 옮겨 무대와 객석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관객들이 보다 생동감 있는 무대를 느낄 수 있다.

일시 7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프리뷰



김옥련발레단 '운수좋은 날'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작가 현진건이 1924년 발표한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은 김침지라는 인력거꾼의 하루 동안의 일과와 그 아내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일제 식민지 치하 하층 노동자의 궁핍한 생활상과 기구한 운명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문화공감 방방곡곡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발레컬 '운수좋은 날'은 지난 2012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발레단체인 김옥련발레단이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원작소설을 전체 8장으로 각색해 기본 줄거리는 소설에 충실히 하면서 가난과 결핍 속에 담긴 인간성의 본질과 운명적 사랑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레를 기반으로 다양한 춤과 노래가 더해진 뮤지컬 양식에 각 장면마다 연극적 요소를 강화한 융·복합 무대공연으로, 영상과 샌드 아트, 라이브 연주가 더해지면서 원작의 감동을 생생히 전달한다. 김옥련발레단은 그동안 '운수좋은 날' 외에도 이상의 '날개',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 등 문학과 발레를 접목시킨 다양한 발레컬 무대를 선보여왔다.

지난 1995년 창단한 김옥련발레단은 21C 발레 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과 레퍼토리 확보로 활발한 활동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발레컬 '운수좋은 날'

—
소설과 발레, 뮤지컬이 결합된
특별한 무대, 발레컬 '운수좋은 날'이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을 펼치고 있는 민간발레단체로, 창단 이후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왔다. 특히 타 장르와의 융합된 무대공연을 시도하고 잘 알려진 문예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한 창작발레를 지향하는 한편, 춤의 저변확대를 위한 어린이 발레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매년 5월이면 무대에 오르는 가족 창작발레극인 숲속 발레 '거인의 정원'은 발레, 연극, 뮤지컬, 현대춤 등을 망라한 종합극으로 올해로 벌써 17년째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매년 우수 레퍼토리와 신작을 발표하며 다양한 시도와 폭넓은 관객 개발로 부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옥련발레단은 올해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서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씨 17년째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매년 우수 레퍼토리와 신작을 발표하며 다양한 시도와 폭넓은 관객 개발로 부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옥련발레단은 올해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서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프롤로그 사랑과 운명

1장 연인 2장 일상 3장 노동의 운명

4장 달리는 인력거 5장 오! 해피 데이 6장 카바레

7장 홀로, 김침지 8장 꽃분이의 죽음

에필로그 사랑과 운명

운수 좋은 날

일시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00, 18일 목요일 오후 2:00, 8: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상사화



지난 1998년 2월 창단한 부산시립극단은 그동안 고전극에서부터 사실극, 부조리극, 악극, 뮤지컬, 한국 현대극 등 저명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대적 작품과 부산의 원로 연출가 및 신예 연출가 등 다양한 객원 연출가들의 작품으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상사화'는 지난 2017년 년별 퍼포먼스 '몽키댄스'로 에디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평균 객석점유율 80%를 넘기며 주목받았던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대표이자 연출가

인 변진호의 객원연출로, 금관가야의 자취가 남아있는 김해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의와 황세' 이야기를 소재로 이를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이다.

'여의와 황세' 설화 속 주인공인 황세와 여의는 친구였던 두 아버지의 약속으로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다. 그러나 여의는 원래 여자로, 운명을 바꿔야 자식이 살 수 있다는 노승의 권유에 여의의 아버지인 출정승이 여의를 아들이라 속인 것. 어려서부터 여의와 형제처럼 같이 자란 황세는 16세가 되면서 여의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서로 사랑에 빠지나 당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부산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두 번째

창작뮤지컬 '상사화'

2018년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무대로 창작뮤지컬
'상사화'를 선보인다.

시 금관가야의 9대 왕이었던 검지왕이 그의 사랑하는 딸 유민공주와 황세를 혼인시키면서 비극적 사랑이 시작된다.

설 틈 없이 이어지는 노래와 군무, 대사 또한 음률을 엮혀 노래하는 프랑스식 뮤지컬을 모티브로 제작된 뮤지컬 '상사화'는 마치 몽유도원도 같은 동양적인 색채감으로 가득찬 무대와 가야시대 복식문화에 기반을 두어 재해석한 의상, 그리고 부산시립극단만의 깊이있는 연기와 애절한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열렬함을 잊은 요즘 시대, 운명을 거스른 황세와 여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변진호 연출가는 지난 2011년 부산 유일의 뮤지컬 제작 전문단체인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를 창단, 그동안 뮤지컬 '춘향YO-원래, 춘향은 못생겼다', '바보미소: 가슴속에 별을 품은 아이', '욕하고 싶은 날', 년별 퍼포먼스 '몽키댄스' 등을 연출하며 지역 창작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인공 황세와 여의役に 부산시립극단 단원 서보기, 오희경을 비롯해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출연, 역사의 뒀안길에서 사라져 우리에게 잊혀졌던 '여의와 황세'의 사랑을 되살려낸다.

일시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7:30, 21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프리뷰



여름마당춤축제는 매년 한 여름 밤 시원한 야외마당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레퍼토리로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올해는 앞서 지난해 78회 정기공연 ‘댄스 유토피아’를 통해 선보였던 살풀이, 바라춤, 지전춤, 무당춤 등을 야외마당으로 가져와 색다르게 구성, 관객들과 함께 하는 무대로 꾸민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춤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골프고등학교

태권도시범단, 비보이 퍼포먼스팀 ‘스펠바운드’가 특별출연해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1부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춤 축제가 펼쳐진다. 살풀이춤, 바라춤, 지전춤, 무당춤 등 한국춤의 소중한 자산인 4가지 전통춤을 전통춤이 가진 숭고한 미덕 중 하나인 ‘제(祭)’의 올림-올림-떨림-열림으로 연결시켜 댄스 유토피아가 그리는 춤의 시간 여행을 떠난다. ‘댄스 유토피아’는 전통춤 전체를 우리네 삶으로, 개별 레퍼토리를 인간 개체로 치환시켜 다양한 군상(群像)이 존재하는 우리네 삶에 있어 유토피아의 의미처럼 각자의 개성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이상향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한다.

2부는 부산골프고등학교 태권도시범단과 비보이 퍼포먼스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8 여름마당춤축제
‘댄스 유토피아’

—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여름, 지역민과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마련해온 ‘2018 여름마당춤축제’가 7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스펠바운드’의 무대로, 관객과 어우러지는 신명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가대표 및 실업팀 선수들을 배출한 태권도 명문 고등학교인 부산골프고등학교 태권도시범단은 이번 무대에서 K-pop 음악을 시작으로 한국을 알리는 아리랑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배경으로 태권도 품세 및 퍼포먼스 시범, 태권도 격파를 보여준다. 부산골프고등학교 태권도시범단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도 초청되어 시범공연을 갖는 등 국내외에 태

권도를 알리는 태권도 전도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비보이 퍼포먼스팀인 ‘스펠바운드(Spellbound)’의 무대로, ‘국악’과 ‘비보이’를 결합한 색다른 비보이 퍼포먼스팀인 ‘스펠바운드’는 지난 2015년 새롭게 재구성된 후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스펠바운드(Spellbound)’는 ‘마음을 빼앗긴, 넋을 잃은, 홀리다, 매료시키다’는 뜻으로, 그동안 관객의 마음을 빼앗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왔다.

댄스 유토피아

일시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8: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야외마당(*우천시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인 '가요합창음악회'로 꾸며진다. '가요합창음악회'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선보였던 '7080 가요합창음악회'에서 진화된 형태의 공연으로, 그동안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올해 '가요합창음악회'의 주인공은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왕(歌王) 조용필. 지난 1979년 '창밖의 여자'로 데뷔한 조용필은 LP, 테이프, CD, 음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1970년대부터 1980~90년대, 2010년대에 걸쳐 차트 1위곡을 보유한 한국 대중음악의 산 전설로, 국내 대중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홀 공연(1980년), 국내 대중가수 최초 공산국가 중국 북경 공연(국교 전인 1988년), 국내 대중가수 최초 예술의 전당 공연(1999년), 한국가수 최초 평양(북한) 단독공연(2005년)에 이어 2010년에는 공연 이틀동안 관객 10만명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유료 콘서트 역사상 최단 기간 최다 관객을 기록하는 등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8 써머판타지 가요합창음악회 조용필의 50년, 함께 여행을 떠나요

매년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 '써머판타지'
2018년 무대가 7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기타리스트 황보승, 베이스 기타리스트 김대희, 드럼주자 구명일의 특별출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작곡가 최석태, 이소진, 문지은, 윤경미, 지혜정이 대중가요의 품격을 살린 합창곡으로 재편곡한 바운스(Bounce), 허공,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길잃은 철새, 고추잠자리, 그 겨울의 찻집,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산장의 여인, 비련, 못찾겠다 피꼬리, 미지의 세계, Q, 친구여, 꿈, 모나리자 등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지휘 전진(부지휘자)

특별출연 황보승(기타), 김대희(베이스기타), 구명일(드럼)
편곡 최석태, 이소진, 문지은, 윤경미, 지혜정

2018 써머판타지

일시 7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과학마술콘서트



과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술과 과학을 결합하여 탄생한 '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는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작으로, 마술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서도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과학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마술사와 과학자의 한판대결이라는 설정 속에 '알면 과학! 모르면 마술!'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 신기한 과학을 접해보고 관객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착시', 빛의 굴절을 이용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법과 마술사가 겨울왕국의 엘사가 되는 시간 '굴절', 공기대포를 이용해 와류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대기압',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액체질소', 투명한 물이 오렌지 주스와 우유로 바뀌는 '화학반응', 정전기를 이용한 재미나는 인형만들기 '자석과 전기'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마술사 최형배의 신기한 마술 시연과 해설로 알아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마술사 최형배는 SBS 스타킹 국내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작

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재)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가
7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최초 매직 서바이벌 우승을 시작으로 최현우의 매직콘서트 마술감독, 유재석의 놀리와 마술강의, 2018 TV조선 '매직컨트롤' 설특집 출연, 2018 EBS '아빠타' 출연, 영화 '적조' 저택 살인사건' 마술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알면 과학! 모르면 마술!
마술을 통해 과학을 배우는 시간
포인트 1 보는 쇼에서 만지는 쇼!
무대에 올라와 신기한 과학마술을
직접 체험하면 과학은 재미있는 친

구가 되요!

포인트 2 왜 이렇게 되지

친구들이 직접 만지고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사고력을 키워줘요!

포인트 3 공연은 끝나도 과학은 계속 된다!

공연 후 집에 가서도 쉽게 따라하고 응용하면서 창의력이 쑥쑥 올라가요!

일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60% 할인, 어린이 동반관객·학생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Summer Ballet Festival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배유연이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발레단, 파리 오페라발레단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김용걸댄스씨어터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발레리노 김용걸을 비롯하여 국내외 발레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20여 명의 무용수들이 함께한다.

서양인에 뒤지지 않는 신체조건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무용수로 평가 받는 김용걸은 지난 1990년대 후반 한국발레 르네상스기를 이끈 '1세대 스타 발레리노'로 유명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후 국립발레단에서 주역 무용수로 활동하다 지난 2000년,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하며 동양의 떠오르는 발레리노로 주목받기 시작한 김용걸은 2005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솔리스트'로 승급한 후 이듬해 첫 주역을 맡아 세계적인 발레리노도 도약했다. 김용걸은 지난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귀국한 후 현재 후진양성과 함께 안무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용걸과 함께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역임하고 국립발레단 부설 발레아카데미 교장으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레리노 김용걸과 함께하는 'Summer Ballet Festival'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과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Summer Ballet Festival'이
오는 8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레단 솔리스트 윤별 등이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발레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꼽히는 차이콥프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3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2인무를 시작으로 '백조의 호수',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을 토대로 마리오스 뽀티파가 경쾌한 고전발레로 탄생시킨 걸작 '해적', 그리고 희극 발레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파드되(pas de deux, 2인무)' 무대와 김용걸이 안무한 창작발레 'Conscience(의식)', '레 무브망(Les Mouvement)', '산책', '오블리비아떼(Obliviate)'를 감상할 수 있다.

있는 김지영과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워싱턴발레단 단원을 역임한 김현용, 베를린슈타츠오페라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이승현,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최영규, 네덜란드국립발레단, 노르웨이국립발레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폴란드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있는 권세현, 올덴도발레단 수석무용수 원진호, 김용걸댄스씨어터 주역 김다운, 폴란드 국립발레단 단원 정재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오페라발레단 단원인 최원준, 파리오페라발레단 준단원 강호현, 우루과이 소드레 국립발

일시 8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QUENTIN BLAKE'S STUDIO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퀸틴 블레이크展
 in 부산

© Illustrations Quentin Blake 2017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KT&G 상상마당 20세기 거장 시리즈 다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퀸틴 블레이크(Quentin Blake)의 작품이 부산을 찾는다.



- ◇ 7월 7일(토)-9월 30일(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입장마감 오후 7:00)
- ◇ 균일 8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천원,
- ◇ 단체 4천원, 초중고생 3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유아·장애인 무료)
-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www.bscc.or.kr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화 작가로 유명한 퀴틴 블레이크는 지난 60여 년간 따뜻한 그림체와 성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동화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최근 20세기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KT&G 상상마당 '20세기 거장 시리즈'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서울(2017년 10월 21일~2018년 2월 20일)과 춘천(2018년 3월 8일~6월 28일)에서 전시회를 가지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퀴틴 블레이크展 in 부산'은 지난해 10월 재단법인 화 이후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공문화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민회관이 KT&G 상상마당과 함께 펼치는 기획적으로 서울과 춘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그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193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퀴틴 블레이크는 그의 나이 16살이던 1949년부터 영국의 풍자주간지인 '펀치 매거진(Punch magazine)'의 만화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첼시미술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한 블레이크는 1960년 그림책 작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300여 권의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직접 글을 쓰기도 했다. 원화작가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글을 통한 스토리텔링에도 뛰어났던 블레이크는 1980년, 자신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매그놀리아씨'로 영국에서 출판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의 작가에게 수여하는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Kate Greenaway Awards)을 수상했으며, 1996년에는 '어릿광대'가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어린이책'으로 선정됐다. 2002년에는 마이클 로젠과 협업한 '내가 가장 슬플 때'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천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퀴틴 블레이크는 1990년 대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유명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기획자로 일하며 여러가지 자선활동들을 통해 그



1 Clown_ by Quentin Blake (1995)

2 Cover artwork for the Sunday Times magazine
Roald Dahl 100 special issue (2016)

의 능력을 공공 영역에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예술과 음악을 통해 런던의 병원들을 밝고 활기찬 공간으로 바꾸는 '나이팅게일 프로젝트(Nightingale Project)'를 진행했던 병원을 비롯해 레스토랑, 극장, 도서관 등 런던 곳곳의 건물들과 잡지나 앨범 표지, 뮤직비디오 등 매체에 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퀴틴 블레이크의 작품은 동물이나 어린 아이들을 모티브로, 인생에 대한 진리를 유머로 풀어낸다. 그의 통찰력은 매우 날카롭고 진지하지만, 그림체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이 담겨있다. 퀴틴 블레이크의 이번 전시에서는 '펀치 매거진'에 수록된 블레이크의 초기작에서부터 고전 도서의 삽화와 다른 작가와의 협업 작품을 비롯해 블레이크가 직접 작업한 도서와 런던 도시 곳곳에 그려진 그의 그림들, 그리고 국내 미 발표작까지 그가 60여년 간 작업해왔던 180여점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작품에서 느껴지는 화려한 색채와 잔잔한 붓터치, 그리고 스케치 선이 그대로 보이는 원화의 생생한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전시 작품 외에도 블레이크의 영국 현지 작업실을 재현한 퀴틴 스튜디오 전시실에 설치, 그의 작업공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도서 출판사인 시공주니어와의 협업으로 마련된 '퀴틴 블레이크 미니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그의 도서를 직접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

ISSUE

문화가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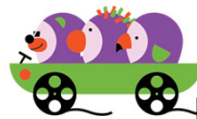
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달라도 좋아! (We are All Unique!)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영상문화 축제 '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이하 BIKY)'가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펼쳐진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 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지난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은 BIKY는 2015년부터는 매년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주제로 획일화된 교육,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BIKY에서는 전 세계 55개국 175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우선 BIKY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공식 경쟁부문인 '레디~액션!'에서는 올해 매년 늘어나는 출품 편수와 어린이·청소년 영화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만 13~15세 청소년 영화인들의 작품을 새로이 구분, '레디~액션! 15'를



신설하면서 ‘레디~액션! 12’, ‘레디~액션! 15’, 그리고 ‘레디~액션 18’ 등 총 3개부문으로 나뉘어 총 40편의 본선 진출작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레디~액션! 15’ 부문에는 크로아티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등 다양한 해외 국가의 작품이 본선에 올라 세계 청소년 영화인들의 작품 경향을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비경쟁부문에서 장, 단편을 각각 소개해왔던 ‘큰나래 모음’과 ‘작은나래 모음’은 올해부터는 ‘나를 찾아서’, ‘너와 더불어’, ‘다름 안에서’, ‘경계를 넘어서’ 등 주제에 따라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작품을 소개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나를 찾아서’에서는 바둑 신동의 오목 도전기를 그린 백승화 감독의 ‘오목소녀(2018)’,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아니엘 웹스터 감독의 ‘미스터 트위스터(2016)’ 등 19편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합,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을 그려낸 ‘너와 더불어’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성장하는 김중우 감독의 ‘홈(2017)’, 제13회 BIKY 폐막작으로 선정된 릭 피카드 감독의 ‘크로스 마이 하트(2017)’ 등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영화 20편이 상영된다. 세상의 수많은 차이들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름 안에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겨루고 화합하는 등위봉 감독의 ‘반딧불이 딴딘(2017)’, 부르키나파소와 프랑스의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소년을 그린 베르니 골드블랫 감독의 ‘월레이(2017)’ 등 문화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22편의 영화가 소개되며, 신나는 모험과 설레는 미래의 상상이 가득한 ‘경계를 넘어서(Beyond the Boundary)’에서는 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여름과 겨울이 대치하는 안드레이 김 감독의 ‘여름 마을과 겨울 마을(2015)’, 신비로운 호숫가의 수호신이 등장하는 졸트 팔피 감독의 ‘호숫가 이야기(2017)’ 등 다채로운 상상력이 빚어내는 2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서는 ‘아시아 파노라마’ 섹션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제작된 어린이청소년 영화에 주목한다. BIKY의 시작을 알리게 될 개막작 모하메드 알리 탈레비 감독의 ‘꿈의 끝(2017)’을 비롯해 따스한 음악을 들려줄 장 웨이 감독의 ‘티베트의 노래(2017)’, 자신의 정체성으로 갈등하는 아들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루키쉬 쿠마르 감독의 ‘내 아들에 대하여(2017)’ 등 다양한 색채와 개성을 지닌 9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올해 BIKY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또다른 섹션은 ‘독일 포커스’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독일의 어린이·청소년 영화의 현재를 만나볼 수 있다. 헤어진 쌍둥이 자매의 재기발랄한 부모 상봉기를 그려낸 란슬롯 본 나소 감독의 ‘로테와 루이즈(2017)’, 말썹쟁이 친구들의 신나는 모험을 코믹하게 풀어낸 랄프 흐

터너 감독의 ‘쉬버스톤 성의 아이들(2016)’ 등 독일의 슈링겔 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와 괴테문화원, 작센 주지사 공관이 제공한 7편의 장편영화가 상영된다. 이밖에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로 꾸며지는 ‘리본 더 비키(ReBorn the BIKY), 여름밤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작으로 마련되는 ‘야외극장-달빛별빛’, BIKY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2018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식은 7월 11일, 폐막식은 7월 1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작인 이란의 모하메드 알리 탈레비 감독의 ‘꿈의 끝’은 이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민하는 8살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작으로는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무력감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캐나다 감독 릭 피카드의 ‘크로스 마이 하트’를 상영한다.

- ◇ 7월 11일(수)-17일(화) 영화의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 일반상영작 6천원(개·폐막작 7천원, 프리패스ID 2만5천원,
- ◇ 레디~액션!, 리본더비키 무료)
-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y.or.k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무엘 윤 & 손지혜 듀오 콘서트’ 최상의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선사한 오페라의 향연



◆ ... 음악평론가 박진홍

지난 6월 15일 저녁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김덕기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반주로 바리톤 사무엘 윤과 소프라노 손지혜의 듀오 콘서트가 열렸다. 사무엘 윤은 여러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실력을 검증 받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오페라 무대의 주역을 맡고 있다. 그리고 손지혜는 다수의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로서 다양한 색채의 연기력과 가창력을 보여주며 차세대 디바로 손꼽히고 있다.

첫 곡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이 연주되었다. 첼로의 피아니시모로 연주되는 시작 부분은 아름답지만 이를 수 없는 사랑의 아픔과 죽음을 담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이후 감정선의 흐트러짐 없이 담담하게 읽어 내는 음악과 푸른 조명, 그리고 보면대를 비추는 작은 불빛들이 어우러져 매우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후반부 첫 곡으로 연주한 ‘로엔그린’의 3막 전주곡에서도 균형감과 한껏 정제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어 편안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악기들의 팡파르가 조금 더 몰아쳐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소프라노 손지혜는 그녀를 수식하는 ‘차세대 디바’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준 높은 연기기량과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스네의 ‘마농’ 중 ‘내가 거리에 나서면’에서는 매력적이고 도도한 이미지를 가진 여주인공의 모습을 기품있게 해석해 내었다면 푸치니의 ‘라보엠’ 중 ‘내가 거리를 걸을 때’에서는 마농의 노래 보다는 더욱 자아도취가 된 모습 속에서 매력을 드러내는 연주를 보여 주었다. 도니제티의 ‘돈 파스칼레’ 중 ‘신사처럼 보이는’을 노래할 때에는 귀엽고 청순한 아가씨의 이미지와 음색에서 갈수록 표현력을 높이고 기교적인 연주를 펼쳐 관객들의 열정적인 박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속에 살

고 싶어요’에서는 섬세한 표현력과 더불어 드라마틱하고 열정적인 연주를 통해 사랑에 빠진 줄리엣의 감정을 잘 전달해 주었다.

바리톤 사무엘 윤의 프로필 사진은 굉장한 무게감과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바그너의 오페라 ‘라인의 황금’에서 신들의 우두머리인 보탄, 니벨룽의 반지 주인 알베리히의 등장을 떠오르게 하였다. 사무엘 윤의 연주에는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등 서로 다른 조명이 사용되었는데, 두터운 볼륨과 매혹적인 중저음의 울림을 가진 목소리, 곡 중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역할에 완전히 감정이입하는 메소드 연기가 서로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마음을 훔쳤다. 필자는 그의 익살스런 연기와 노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바그너나 베르디의 작품에서 느껴졌던 어두움과 무게감, 그리고 처절함과 고뇌하는 자의 모습이 그 음색이나 이미지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바리톤은 대부분 오페라에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듀오 연주는 주인공인 테너와 소프라노의 무대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연주회에서는 정상급 바리톤과 소프라노의 이중창을 여러 곡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을 노래할 때 약장수 역의 사무엘 윤이 부산의 지역 소주를 들고 연기를 펼치자, 객석에서는 큰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무대 내내 담담하고 무게감 있게 내뿜는 바리톤의 중저음과 화려하고 윤기 있는 소프라노의 음색, 세련된 연기력과 유머, 유티 등이 한데 어우러져 풍성함과 다채로움을 느끼게 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명확하면서도 정제되고 유연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반주, 가창력과 연기력에서 최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준 사무엘 윤과 손지혜에게 오래도록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 주었다.

부산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댄스 유토피아’ 삶을 위무하는 춤·굿



© HA Sung-min

◆ 무용평론가 권옥희

전통을 입은 현대적 굿이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댄스 유토피아’(5월 31일~6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용철 예술감독 취임 3년차, 공립단체가 추구해야할 춤의 방향과 정체성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볼 기회였다.

머리에 얹은 민족두리, 흰 얼굴에 붉은색 입술, 목에서부터 쓴 쓰개치마 아래로 얼굴과는 다른 두께의 팔과 다리가 휘적휘적 무대를 가로지른다. 이승의 시간이 아님을 암시하는 존재로 무대를 여닫는 김용철 예술감독의 독특한 춤 색깔은 바라춤에서 색을 더하고 무당춤에서 더 선명해진다. 고아하지도 화사하지도 않은 밋밋하고 평면적으로 풀어낸 살풀이춤에 비해 남자무용수의 팔, 다리, 머리에 달라붙은 바라로 엮어 갇힌 영혼이라든가 바라(쇠)의 마주침에 따라 소리가 염불로, 염불이 활자로 부처상으로 확장되는 영상. 바라춤을 시각적으로 잘 해석해냈다. 그런가하면 부산전통춤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전춤은 현대춤을 추는 조현배의 솔로로 풀어낸다. 춤 사유의 전복이다. 어떤 해석을 엮어도 의미 확장이 가능한, 근사한 춤이었다.

‘댄스 유토피아’의 백미는 무당춤이었다. 붉은 갓을 쓴 무용수의 (신)묘한 표정을 잡은 영상. 적·녹·청·노랑 등 원색을 툫 다운시킨 의상 색의 조합. 넓은 폭 치마가 아닌 좁은 폭의 치마와 상의, 길고 짧은 원색의 가디건, 붉은 색 부채와 갓. 그리고 춤. 뒤로 비스듬히(삐딱하게) 선다거나, 돌아서다 장단에 맞춰 팔을 툫 늘어뜨리고 객석을 슬쩍 쳐다보는 춤사위에서 드러나는 교태와 해학. 귀신을 훔칠 듯한 무용수의 서기어리고 교태어린 춤. 바람처럼 무대를 가르니, 혼(꽃가루)이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방울소리 요란하다.

김용철 예술감독의 춤 감각이 빛을 발하는 장이었다. 앞장 춤의 여운이 다음 장의 춤을 이끄는 형식으로 ‘주고받기가 연속인 삶의 편린’을 풀어낸 춤의 배치 또한 좋았다.

마지막, 무용수들이 흑백의 프레임에 밀고 나와 무대를 서성이니, 흑과 백이 교차한다. 출처를 모르는 프레임은 비문에 매달린 춤의 주어 같은 것. 마치 죽음과 삶 중 어느 것이 춤의 수식어인지 걱정 말라는 듯, 프레임 아래에 서면 보이고 앉으니 보이지 않는다. 생과 죽음이 하나인 것이다. 무당의 붉은 색 입술과 갓, 죽음과 같은 검정색 장삼, 녹색과 노랑, 파랑이 동색인 것처럼. 제(祭)는 상(喪)에서 진화한 것. 하여 살풀이와 바라, 지전과 무당은 상(喪)에서 비롯된 애초에 같은 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무대에 가득, 삶을 위무하는 춤(굿)이었다.

현대적이 된다는 것은 곧 고전적으로 되는 것이다. 김용철 예술감독은 전통의 해체, 재해석이라는 이름을 걸고 현대적 감각으로부터 넘어서 오래된 춤에 부응하여 지켜야할 것을 되찾아내고, 때로는 새로운 것들의 자극과 흥분을 이용하여 이미 무뎠져 버린 춤의 고전적 가치로부터 그 상투성을 벗겨내고, 변화와 갈피 없는 번다함 속에 하나의 통일된 시각을 열어 줄 새로운 춤 미학을 만들어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바라건대 전통춤 작업을 할 때 한국 전통춤의 새로운 해석, 정신을 가지고 가되 표현은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한국창작춤 작업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이 추구해야할 또 하나의 춤 정체성이다.

부산문화회관

원스트링 챔버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1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원스트링 챔버 010-4550-9961



견고한 실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갖춘 비올리스트 이정일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의 젊고 열정적인 실력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원스트링 챔버 정기연주회. 전문적인 클래식 공연은 물론 앙르원, 요양원, 다문화 가정 등 예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연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비발디, 바흐의 작품을 통해 현악기만의 아름답고 우아한 소리와 때로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로 감동을 전해준다.

- 리더 및 음악감독/이정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UKO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43회 사랑 나눔 연주회

일 시 7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UKO 오케스트라 988-3087, 010-3863-3087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06년 결성된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오케스트라인 UKO(유나이트드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뜻을 같이 하는 부산시립 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그 외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연주자 등 10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UKO는 그동안 연주회를 통한 음악회 수익금으로 지금까지 200여명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해왔다.

- 지휘/장진
- 바이올린/신상준
- 소프라노/김아름
- 플루트/장예지

2018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제4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기념 그랜드 갈라 콘서트

일 시 7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단체 예매시 30% 할인)
 문 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 010-9168-9434



동유럽 정상급의 교향악단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 그랜드 갈라 콘서트.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벨리니, 림스키코르사코프, 드보르작, 베르디, 푸치니, 로시니, 구노, 비제, 레하르 등 작곡가들의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무용과의 만남, 격정적인 무대로 오페라 아리아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다.

- 지휘/김영근, 김현국
- 음악감독/김현도
- 소프라노/신선미, 김성경, 박성희, 이지은
- 메조소프라노/윤소은
- 테너/용민중, 조윤환
- 바리톤/안세범
- 베이스/박성진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솔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일 시 7월 5일-6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학생 본인 50% 할인)
 문 의 솔오페라단 1544-9373



2018년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기념해 솔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2005년 창단한 솔오페라단은 젊은 감각과 높은 완성도의 오페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오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오페라 단으로,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대상없는 금상,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해외 합작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단장, 예술총감독/이소영
- 지휘/박지운
- 소프라노/박현정, 김신혜, 엄남이, 권수현
- 테너/조윤환, 김준연
- 바리톤/손동철, 나현국
- 베이스/전태현

이환석 클라리넷 귀국 독주회

일 시 7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이환석 010-6284-6357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독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Master)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귀국 독주회. 유학시절 피아노 트리오로 참가, 이탈리아 Citta di Barletta 1위, EUTERPE 국제 콩쿠르, Giovanni Misticisti-Citta di Treviso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입증받은 이환석은 독일 ORSO Philharmonic Orchestra 객원 수석 클라리네티스트로 활동하며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올해 3월, 오디션을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무대에 선 바 있다.

- 피아노/황아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2회 정기연주회 열정과 냉정 사이

일 시 7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표현력 있는 음악과 열정적인 연주로 청중을 압도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우재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2회 정기연주회 '열정과 냉정 사이'. 상임지휘자 최수열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알베니스 '아스투리아스(전설)'과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우재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줄리아니의 '기타협주곡 제1번'에 이어 핀란드의 국민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김우재는 현재 현대음악앙상블 CMEK와 Korea Japan Guitar Octet, Music Coop, Estro Duo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 지휘/최수열
- 클래식 기타/김우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_2.주(酒)

일 시 7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두 번째 무대 ‘고주망태(孤酒忘態)_2.주(酒)’. 2015년부터 공연을 이끌어온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이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랫동안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어준 술(酒)을 주제로 음악과 철학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판소리명창 배일동이 출연, 평생 술을 가까이 한 것으로 알려진 시선(詩仙) 이백의 권주가 ‘장진주(將進酒)’를 들려준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일 시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1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평소 음악교과서에서 만나던 음악을 선곡, 독창에서부터 중창, 합창과 판소리, 기악 등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초·중·고 음악교과서를 직접 집필한 홍종건 합창 지휘자가 객원지휘로 특별출연해 ‘5개 창작동요메들리(박대웅 편곡)’를 들려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음악교과서 대표저자(YBM)인 홍종건은 현재 화율림 남성 싱어즈, 카시아 싱어즈, 서울교구 명일동 고중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13일 프로그램
 슈만(편곡/이건륜)/어린이정경 13곡

음악연극 ‘행복을 찾아서’

일 시 7월 8일 일요일 오후 7:30, 9일 월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함)
문의 극단 디딤돌 02-766-9793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민참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문예술단체 극단 디딤돌의 안전연극 ‘행복을 찾아서’. 사건, 사고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2018년, 근본적인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된 특수 경찰 부서를 배경으로, 각 부서에서 차출된 경찰들과 전문가들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을 그린 유쾌 발랄, 감동의 음악극이다.

- 예술감독/김동호 ● 작, 연출/임대일
- 출연/이문수, 김명국, 김효숙, 정의갑, 박현일, 전진오, 박소리, 김명식, 박한솔, 김단비, 이은선, 이규원

빌 파킨슨/어머니
 안효영(편곡)/섬집아가
 판소리/‘춘향가’ 중 ‘사랑가’
 베버/사냥꾼의 합창
 베르디/히브리노예의 합창
 비제/로망스 등 수곡

- 14일 프로그램**
 히사이시 조/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신동천(편곡)/그대 있는 곳까지
 박금진(편곡)/흥부와 놀부
 권정규/바람이 전하는 말
 유병무/별보며 달보며
 정재원/아빠 사랑해요
 강원도민요/한오백년
 커티스/돌아오라 쏘렌토로 등 수곡
- 지휘/이건륜(수석지휘자)
 - 피아노/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노민지(성악)
 - 해설/정두환(음악평론가)
 - 특별출연/홍종건(객원지휘), 문동환(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최준식(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정선희(판소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송강수(고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조희규(해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찬조출연/오륙도초등학교 합주단(지휘/여대현)

소프라노 설은경 귀국 독창회

일 시 7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예매시 50% 할인)
문의 아트매니지먼트 이랑 010-9338-8485, 010-7200-0983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도, 퀴른 국립음대 Diplom과 Master of music를 졸업하고 독일 라인스베르크극장 솔리스트, 독일공영방송 WDR 객원단원으로 있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소프라노 설은경 귀국 독창회. 설은경은 그동안 오페라 ‘메리위도우’, ‘마술피리’, ‘리골레토’, ‘코지 판 투테’, ‘라 트라비아타’, ‘돈 파스칼레’ 주역을 비롯해 헨델 ‘메시아’, 생상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하이든 ‘천지창조’ 솔리스트, MBC 목요일음악회, KBS TV ‘문화 속으로’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 피아노/양기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김연우 콘서트 ‘熱音會’

일 시 7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갯연우’라 불리는 가수 김연우가 7년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며 갖는 전국 투어 콘서트. 지난 5월 발매된 다섯 번째 정규음반 ‘나의 너’는 타이틀곡 ‘반성문’을 포함해 모두 1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작사와 작곡으로 참여한 김연우를 비롯하여 포스티노, 하림, 박주원, 윤유, 풀킴, 퓨어김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음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3년만의 전국 투어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새 앨범에 수록된 곡들과 이전 발표된 그의 대표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한얼정악연구소 제22회 정기공연
정인경의 특별무대
시조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

일 시 7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얼정악연구소 010-3870-8597



시조를 우리나라 최초로 창무극(唱舞劇)으로 개발, 전승과 보급에 앞장서 온 한얼정악연구소의 특별한 무대. 30년 시조외길을 걸어온 한얼정악연구소 정인경 대표의 특별무대로, 제1부 천지창조, 제2부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유산, 제3부 예수 탄생, 제4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제5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제6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찬송가, 제7부 대연성결교회 하늘소리 중창단과 국악관현악이 함께하는 찬송가 등 7부로 나누어 전통시조형식을 그대로 살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엮은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 사회/김정(부산시조시인협회 회장)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2018 Concert of Concerto**

일 시 7월 15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010-9507-9090



음악을 통해 우리 주위의 이웃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현재 5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그동안 사랑 나눔 연주회 및 작은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 사랑을 실천해왔다.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부경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지휘자 김태훈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협주곡의 밤에 꾸며진다.

- 지휘/김태훈(동의대 겸임교수, 부경대 외래교수)
- 바이올린/김태완, 김태형, 김시운, 이동건, 김은유
- 클라리넷/임효정, 황유라, 강성현

**부산예술고등학교 2018 예술제
제31회 무용정기공연**

일 시 7월 17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부산예술고등학교 개교 32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2018 부산예술제 '제31회 무용정기공연'.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차세대 무용수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무대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 작품**
현대무용/네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이젠 안녕, Warning(안무/송미란)
발레/코펠리아' 중에서(음악/L. 들리브, 안무/A.M 생레옹, 재안무/이화성)
한국무용/춘향, 그 꽃잎 떨어진 자리마다...'(총연출 및 안무/이은영)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부산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두 번째
창작뮤지컬 '상사화'**

일 시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7:30, 2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2018년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무대, 창작뮤지컬 '상사화'.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대표이자 연출가인 변진호의 객원연출로 선보이는 '상사화'는 금관가야의 자취가 남아있는 김해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의와 황세' 이야기를 소재로 이룰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이다.

- 예술감독, 프로듀서/곽종필(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 객원연출/변진호(끼리프로젝트 대표)
- 작/홍선주 ● 안무/서승현 ● 작, 편곡/강중환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8 여름마당춤축제
'댄스 유토피아'**

일 시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8:00
야외마당(*우천시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여름, 지역민과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마련해온 '2018 여름마당춤축제'. 여름마당춤축제는 매년 한 여름 밤 시원한 야외마당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레퍼토리를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올해는 지난 제78회 정기공연 '댄스 유토피아'를 통해 선보였던 살풀이, 바라춤, 지전춤, 무당춤 등을 야외마당으로 가져와 색다르게 구성, 관객들과 함께 하는 무대로 꾸민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춤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립극관현악단, 부산골프고등학교 태권도시범단, 비비이 퍼포먼스팀 '스펠바운드'가 특별출연해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손창용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7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손창용 010-6626-2396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하고 Bourg-la-reine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으로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손창용 독주회. 손창용은 동의대학교 신

입생 대표 연주, 동의대학교 교향악축제 오케스트라 협연, 동의대학교 협주곡의 밤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주자, CRD of Bourg-La-Reine/Sceaux 교수를 역임한 Didier Delettre와 함께 폴랑크, 피에르, 엘리에르 리치드슨, 로시니, 요제프 베르만 등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준다.

바리톤 고성현 with 소프라노 한경미 사랑의 봄을 노래하다

일 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문의 (주)라엘엔터테인먼트 1544-3460



세계 최정상 드라마틱 바리톤 고성현과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한스아이스러 오페라/리트과를 수석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예술종합원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한경미가 함께 하는 무대. 이태리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유명 극장에서 활약해온 고성현은 이태리 현지에서 성악가 4명의 목소리를 합친 것과 같다 하여 '콰트로 바리토니'라고 불리우며 벨칸토 창법의 새로운 모델상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다. 고성현은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연주/이엔아이 앙상블(바이올린 박진희, 첼로 양혜영, 기타 김도윤, 멜로디언 채석진)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8 써머판타지-가요합창음악회 조용필의 50년, 함께 여행을 떠나요

일 시 7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 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매년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 '써머판타지' 2018년 무대.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왕(歌王) 조용필의 대표곡으로 꾸며진다.

- 프로그램**
바운스(Bounce), 허공,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길 잃은 철새, 고추잠자리, 그 겨울의 찻집,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산장의 여인, 비련, 못 찾겠다 꾀꼬리, 미지의 세계, Q, 친구여, 꿈, 모나리자
- 지휘/전진(부지휘자)

제16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010-5634-7483



지난 2002년 9월 창단 이후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있는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 프로그램**
로시니/‘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김연준/청나리 살리라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12번 1악장
모차르트/교향곡 제35번 라장조 ‘히프너’ 등
- 지휘/박진
 - 협연/정제혁(테너), 김하늘(피아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작 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

일 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60% 할인, 어린이 동반관객·학생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재)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

과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술과 과학을 결합하여 탄생한 ‘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는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작으로, 마술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서도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과학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한다.

- 연출/마술사 최형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레리노 김용걸과 함께하는 ‘Summer Ballet Festival’

일 시 8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과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배우 윤이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발레단, 파리에페라발레단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김용걸댄스씨어터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발레리노 김용걸을 비롯하여 국내외 발레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20여 명의 무용수들이 함께한다.

서양인에 뒤지지 않는 신체조건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무용수로 평가 받는 김용걸은 지난 1990년대 후반 한국발레 르네상스기를 이끈

‘1세대 스타 발레리노’로 유명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후 국립발레단에서 주역 무용수로 활동하다 지난 2000년,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하며 동양의 떠오르는 발레리노로 주목받기 시작한 김용걸은 2005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솔리스트’로 승급한 후 이듬해 첫 주역을 맡아 세계적인 발레리노도 도약했다. 김용걸은 지난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귀국한 후 현재 후진양성과 함께 안무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프로그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그랑 파드 뒤’(안무/마리우스 프티파, 출연/김지영, 이승현)
Conscience(의식)(안무/김용걸, 출연/정재은, 최원준)
백조의 호수 중 ‘흑조 그랑 파드 뒤’(안무/마리우스 프티파, 출연/김현웅, 권세현)
Les Mouvement(안무/김용걸, 출연/김유아, 안세현, 오한들, 강윤정, 오예린, 이예현, 이지현, 양승연, 박서현)
산책(안무/김용걸, 출연/김지영, 김용걸)
해적 2막 중 ‘파드 뒤’(안무/마리우스 프티파, 출연/윤별, 강호현)
Obliviate(안무/김용걸, 출연/김용걸, 김다운)
돈키호테 중 ‘그랑 파드 뒤’(안무/빅토르 그소브스키, 마리우스 프티파, 출연/최영규, 원진호)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퀴틴 블레이크展 in 부산

일 시 7월 7일(토)-9월 30일(일) 갤러리
입장료 균일 8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천원, 단체 4천원, 초중고생 3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유아·장애인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화 작가로 유명한 영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퀴틴 블레이크'展 in 부산.

이번 전시에서는 '편지 매거진'에 수록된 블레이크의 초기작에서부터 고전 도서의 삽화와 다른 작가와의 협업 작품을 비롯해 블레이크가 직접 작업한 도서와 런던 도시 곳곳에 그려진 그의 그림들, 그리고 국내 미 발표작까지 그가 60여년 간 작업해왔던 180여점의 작품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부산

일 시 7월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문의 피터폴앤메리 02-2637-7179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에 빛나는 앤서니 브라운 원작의 가족 뮤지컬 '기분을 말해봐!'.

소풍가는 날 비가 온다면, 동요발표회에서 실수했다면, 엄마에게 혼쫓이 나서 자신감이 없어졌다면,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 코칭 뮤지컬로, 그림책에 담겨있는 원색의 배경을 그대로 무대로 옮겨오면서 다양한 영상기법과 함께 신나는 음악으로 어린이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발레컬 운수 좋은 날

일 시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00, 18일 목요일 오후 2:00, 8: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소설과 발레, 뮤지컬이 결합된 특별한 무대, 발레컬 '운수 좋은 날'.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라 평가받는 작가 현진건이 1924년 발표한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을 창작발레로 선보이는 '운수 좋은 날'은 발레를 기반으로 다양한 춤과 노래가 더해진 뮤지컬 양식에 각 장면마다 연극적 요소를 강화한 융·복합 무대공연으로, 영상과 샌드아트, 라이브 연주가 더해지면서 원작의 감동을 생생히 전달한다.

- 원작/현진건, 안무/김옥련, 연출, 각색/최병규(서울예술단 지도위원), 연주/현미밴드

2018 혁오 전국투어 '24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 -부산

일 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2014년 혜성처럼 등장해 무서운 기세로 언더씬을 장악한 괴물 인디밴드 혁오(HYUKOH) 부산콘서트. 93년생 동갑내기 오혁(리더, 보컬, 기타), 임동건(베이스), 임현제(기타), 이인우(드럼)으로 이루어진 4인조 인디밴드 혁오는 네 오소를 창법이 가미된 어눌한 듯한 보이스, 사이키델릭 록, 펑크, 힙합 리듬을 믹스한 몽환적인 분위기로 언더는 물론 대중들까지 사로잡았다

혁오는 올해 4월 정규 1집 앨범 '23'을 전세계 발매, 국내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평단과 대중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얻으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ASSITEJ in Busan)

일 시 7월 24(화)-25(수), 28일(토)-29일(일)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패키지 2개 공연 예매 시 40% 할인, 티켓 구매시 '퀴틴 블레이크'展 2천원에 관람가능)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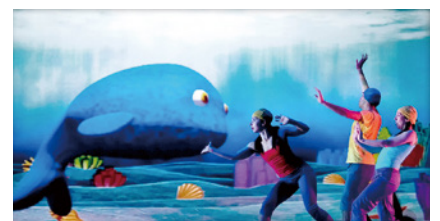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아시아제 국제여름축제' 참가작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올해로 26회를 맞는 아시아제 국제여름축제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분부가 매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해온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축제로 사랑받아왔다. '제26회 아시아제 국제여름축제'가 열리는 기간인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소극장에서는 스페인 라룸베

무용단의 3D 애니메이션 공연 '진짜, 고래?'와 캐나다 퀘벡 극단 다이나모의 아크로바틱 무용극 '걸어서 하늘까지', 그리고 라이브 동화 낭독 공연 '빨간입술 선생님의 소리로 보는 동화'를 만날 수 있다.

일정 스페인 라룸베 무용단 '진짜, 고래?' 7월 24일(화) 오후 2:00, 25일(수) 오전 11시, 오후 2:00 캐나다 퀘벡 극단 다이나모 '걸어서 하늘까지' 7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29일(일) 오후 2:00 한국 이상한 짓 프로젝트 공연 '빨간입술 선생님의 소리로 보는 동화' 7월 24일(화), 29일(일) 오후 3:20, 25일(수), 28일(토) 오후 12:20, 3:20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일, 25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4일(제652회) 허희성 가야금 독주회 '節世佳絃 V'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영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수자로 있는 허희성의 무대.

'절제된 음악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현'이라는 뜻의 '節世佳絃'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영재, 황병기, 미끼 미노루, 이견용의 17현과 25현금 작품을 통해 가야금 창작독주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민해본다.

프로그램

김영재/17현을 위한 '단모리'
황병기/17현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춘설'

미끼 미노루(편곡/백대웅)/25현 가야금 독주회 '소나무'
이견용/25현 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한오백년'

● 장구/송강수



18일(제653회) 최정윤 피아노 독주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후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메릴랜드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최정윤 독주회.

몽고메리 켈리지, 워싱턴 콘서바토리에 재직하던 당시 '한트리오'를 창단하고 Lutheran Church of the Cross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최정윤은 지난 2008년 귀국 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음악인 시리즈 협연을 비롯해 독주 및 듀오,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최정윤은 현재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쇼팽/베토벤 올림바장조 작품 60
칼 바인/소나타 제1번
브람스/소나타 작품 5 제3번

제4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일 시 7월 5일(목)-7월 21일(토)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소공연장 공연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을숙도문화회관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을숙도 오페라축제는 특히 문화 소외지역으로 알려진 서부산권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오페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부산 오페라 인구의 저변확대에 앞장서 왔다.

우나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7월 5일(목)-6일(금)

오후 7:30, 7일(토) 오후 5:00 소공연장

경상오페라단 '세빌리아의 이발사' 7월 7일(토)

오후 3:00, 7:30 대공연장

(재)대구오페라하우스 '마술피리' 7월 14일(토)

오후 5:00 대공연장

더(THE)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7월 20일(금)

오후 7:30, 21일(토) 오후 2:00, 6:00 대공연장

더클래시코 '팔리아치(광대들)' 7월 21일(토)

오후 5:00 소공연장

무지크바움

2018 소통 재즈 페스티벌

일 시 7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10% 할인, 10인 이상 단체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개성 넘치는 실력파 재즈 팀의 연주를 가까이에서 감상함으로써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무지크바움 2018 소통 재즈 페스티벌.

6일(금) Stage 4
'이효정 콰텟'

이효정을 리더로,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재즈 드러머 박성진, 베이스리스트 김대경으로 구성된 이효정 콰텟의 무대.

19일(목) Stage 5 'Newtet'

재즈 보컬리스트 루나수리와 재즈피아니스트 오노린, 재즈드러머 광영익, 베이스리스트 허진호의 무대.

클레다 현악4중주단 제8회 정기연주회
베토벤&브람스 시리즈 I

일 시 7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클레다 현악4중주단 010-4568-3370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서영희와 첼리스트 김유미,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비올리니스트 신지현으로 구성된 클레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클레다 현악4중주단은 지난 2011년 부산음악협회 '실내악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클레다와 함께 떠나는 명화와 음악여행, 무도회로의 초대 등 다양한 기획연주와 초청공연,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현악4중주 초기작품 중 마지막곡인 베토벤 현악4중주 작품 18과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작품 34를 유려한 테크닉과 매력적인 음악성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 박정국과 함께 들려준다.

2018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브런치

일 시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콘서트. 7월에는 '미술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엘레노어 코플라 감독의 영화 '파리로 가는 길'과 함께 프랑스의 진정한 매력으로 손꼽히는 남부 프로방스 지역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떠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역사 프로방스, 리옹 지역 등을 영화와 함께 둘러보며 프랑스 미술작품과 실제 소재가 된 배경, 동시대의 지역 건축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에릭 사티, 가르비엘 포레, 앙리 뒤파르크, 에디트 피아프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가곡과 상송을 소프라노 강혜정, 피아니스트 이영민의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애니메이션 음악회

일 시 7월 10일 화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가 매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최를 기념해 마련하는 애니메이션 음악회.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2012년 9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어벤져스', '라라랜드', '인크레더블',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코코'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 연주로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13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원준연 010-5660-3919



지난 2005년 목관앙상블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의 목관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대중적인 음악과 정통 클래식을 오가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는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기획연주 시리즈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부산음악협회 '레일 위의 클래식', 부산실내악페스티벌, 금정문화회관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 토요일점, 부산시립미술관 토요일라이브,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 '골림', MBC목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연극 | Play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일 시 1월 5일(금)-8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 바라 1600-1716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좌충우돌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게 소원인 사회. 집으로 가는 택시안에서 시작되는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한다. 마지막 인생이 걸린 택시에 탑승한 하영과 그런 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 민수. 과연, 하영은 제 시간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부산리코더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강희숙 010-2562-6561



해마다 바로크곡과 클래식은 물론 가요, 재즈, 국악과의 만남을 시도해 온 부산리코더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초기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알폰소 페라보스코와 바로크 시대의 거장 바흐, 텔레만, 스웨덴 음악의 거장 요한 헬미쉬 로만의 작품에 이어 부산주니어리코더앙상블과 함께하는 대규모 리코더앙상블 연주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브래드포드 로빈슨의 재즈곡 'Show Tunes'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스릴러연극 서툰살인

일 시 3월 14일(수)-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부산초콜릿백토리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노는이 621-4005



전국 관객 100만명을 돌파한 호러극 '두여자'의 제작진이 만든 2018 명품 스릴러극 '서툰살인'. 연꽃선녀라는 이름의 무당집에서 어느 날 시체가 한 구가 신고된다. 목을 메고 자살한 사람의 이름은 윤복술, 바로 연꽃선녀 본인이다. 점점 무너지는 신력에 접신이 되지않자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그의 발버둥은 바로 죽음을 위장하는 것인데... 자신을 대신해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충격실화를 모티브로 한 '서툰살인'은 새로운 스타일의 긴장감, 예측불허의 전개, 파워풀한 연출력으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제4회 선사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원준연 010-5660-3919



지난 2015년 초등학교생부터 일반 성인들까지 전 세대가 모여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행복과 감정을 소통하는 아마추어오케스트라 선사인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지휘자 원준연이 지휘하고 클라리네티스트 이종욱, 소프라노 최은화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자메이카 헬스클럽 - 부산

일 시 5월 17일(목)-7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
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젊은 남녀가 폐업 위기에 놓인 헬스클럽에서 가슴 설레는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극.

트레이너 황강봉은 폐업 위기에 놓인 아버지 소유의 '자메이카 헬스클럽'을 살려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이때 물의를 일으키고 연예계를 떠난 지성미가 한달 안에 체중을 빼주면 헬스클럽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과연 그들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땀흘리며 자신만의 자메이카를 찾을 수 있을까...

- 작/서진원 ● 연출/김재한

연극 신의 아그네스

일 시 5월 18일(금)-8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목요일 공연없음)
NC백화점 부산대점 6층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말과말사이 070-4007-3905



1982년 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온 연극 '신의 아그네스'.

'여성들의 에쿠우스'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 '신의 아그네스'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수녀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아그네스의 행위를 종교적 기적으로 해석하는 수녀원장과 정신 착란에 의한 범죄로 해석하는 여의사의 대립을 통해 믿음을 둘러싼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 작/존 필머 ● 번역/홍서희
- 각색, 연출/이호영
- 출연/강경숙, 안성혜, 정아린, 신민경

코믹연극 달동네

일 시 5월 25일(금)-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극단 바라 1600-1716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때 시절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달동네'.

월남전 참전 중 행정착오로 전사자 처리된 아버지의 잘못된 전사자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부산 달동네로 이사를 오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달동네 사람들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중 심한 화상으로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전국을 헤매다가 가족들을 만나지만, 가족들은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심리스릴러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6월 1일(금)-8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상영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공포, 스릴러극 '새빨간 거짓말'.

완벽주의 성격으로 직업, 환경 모든 것이 부족한데 없는 유리, 어느날과 다를없이 잠이 든 그녀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녀의 주변인들이 용의자로 지목된다. 유리에게 빼앗긴게 많아 그녀를 증오하는 헤진, 그리고 그녀와의 만남이 숨막혀 벗어나고 싶은 남자친구 정훈, 계속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이유와 범인을 찾지 못하는데 다시 그녀의 손가락이 잘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과연 이들 중 범인은 누구일까?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일 시 6월 1일(금)-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쿠니의 대표작으로, 1998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라이어' 시리즈 2탄.

'라이어 1탄'으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실마리에 더욱 탄탄하게 다져진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라이어 그 후 20년'은 20년 동안 두 가정에서 버젓이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통해 유쾌한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장르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라이어 그 후 20년'은 20년 동안 두 가정에서 버젓이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속도감 넘치는 전개를 통해 유쾌한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아트레볼루션 전용관 개관작 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일 시 6월 15일(금)-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아트레볼루션 전용관
입장료 전석 4만원
문 의 아트레볼루션 010-3444-4609



지난 2012년 타지역과는 차별되는 부산만의 색깔을 담은 창작극을 제작해온 아트레볼루션이 남천동 전용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2013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아트레볼루션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사랑받은 이번 무대는 초등학교 교사 강희와 텔레파시 초능력자 힘찬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결혼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본다.

- 작, 작곡, 연출/박정우
- 출연/박준성, 채민수, 이태경, 변은지, 박슬기, 김수희, 김범수, 정호준, 박재현, 김정환

기타공연장

2018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일 시 6월 26일(화)-7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공간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 611-8518



부산의 극단 어머니 킹을 비롯해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극단 놀자(대전),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구미), 극단 한울림(대구), (사)문화프로덕션도모/극단 도모(춘천)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지역극단들이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연관람을 위해 마련한 '2018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부산무대.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그게 아닌데'
6월 26일(화)-27일(수) 오후 8:00
불통하는 이 세상을 은유와 풍자로 풀어낸 블랙코미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부산

일 시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의 (주)에스제이엔터 1599-2005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깊은 감동을 선사한 세르반테스의 명작소설 '돈키호테'를 뮤지컬로 제작한 '맨 오브 라만차' 부산공연. 50년 넘게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아온 '맨 오브 라만차'는 자신이 돈키호테라는 기사라고 착각하는 괴짜노인 알론조 키하나와 시종 산초의 모험을 그려낸 작품으로 꿈을 쫓는 노인의 여정을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르반테스&돈키호테 역의 오만석, 홍광호를 비롯해 윤공주, 최수진, 이훈진, 김호영 등 역대 최고의 캐스트가 출몰동한다.

극 '그게 아닌데'.
• 작/이미경 • 연출/이담금

극단 놀자(대전) '최후의 전사'
7월 3일(화)-4일(수) 오후 8:00
고려시대 몽골군에 저항했던 삼별초 이야기를 그린 연극 '최후의 전사'.
• 작/한민규 • 연출/유나영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구미) '청록'
7월 11일(수) 오후 8:00
예술과 표현이 억압받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청록집'을 함께 냈던 시인 박목월과 조지훈의 예술혼을 그려낸 연극 '청록'.
• 작/김영승 • 연출/황운동

극단 한울림(대구) '하녀들'
7월 13일(금) 오후 8:00
프랑스의 유명 극작가 장 주네의 희곡을 비주얼과 오브제 중심으로 새롭게 제작한 연극 '하녀들'.
• 각색, 연출/황운기

(사)문화프로덕션도모/극단 도모(춘천) '하녀들'
7월 15일(일) 오후 5:00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이른바 '뽀뽀자 매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 '하녀들'.

문화판 모이라 나는 죽는다

일 시 7월 18일-19일 수-금요일 오후 7:30, 2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문화판 모이라 010-9701-0712



일상의 풍경 속에서 녹여낸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를 담은 연극 '나는 죽는다'. 북한산 인근의 낙원빌딩 401호에 사는 덕수는 만성신전증과 뇌졸중의 후유증을 안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다. 빛을 만나면 쓰러져 낙원빌딩 바로 옆 건물인 119 안전센터의 급구차 신세를 자주 진다. 덕수는 발당주인인 상만의 도움을 받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름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자기를 죽여달라는 제안을 하는데...
• 작, 연출/김숙경

공포 심리 미스터리 연극 흥터

일 시 6월 29일(금)-8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축제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아이엠컴퍼니 070-4211-8879



같은 사건 그러나 다른 상처를 지닌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통해 순도 100% 리얼 공포를 선사하는 공포심리소릴러 연극 '흥터'. 대학시절부터 사랑과 우정을 이어온 동훈, 재용, 지은은 복잡미묘한 관계 속에서 등산을 가던 중 갑자기 지은이 돌연사하게 된다. 8년 후 두 친구는 지은이 죽은 그 산을 다시 찾게 되고 등산 중 재용은 부상을 입고 앞치대 달친 격으로 길까지 잃게 된다. 가까스로 발견한 산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은 지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은 결국 그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가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사)극단 에저도 썸데이

일 시 7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2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사)극단 에저도 852-9161



10억의 빛을 저서 자살을 시도하려던 해준은 대학교 동창 하승표를 만나고, 현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은근 로맨티스트 승표는 해준에게 고민을 상담한다. 늘 승표에게 짝사랑하던 여자를 뺏겼던 해준은 그의 고민을 들어주다 승표의 그녀 서경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데... 과연 해준과 승표, 서경은 이대로 괜찮은가? 어느날 느닷없이 찾아온 사랑의 설레임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썸데이'.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 작곡&음악감독/김인애 • 연주/라라밴드

무용 | Dance

부산예술회관_예감;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남선주무용단
‘茶香…춤으로 물들다’

일 시 7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www.bsart.or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예감;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7월에는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새암총회 대표를 역임하고 2011년 부산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한 남선주가 이끄는 남선주무용단이 한국무용과 다도를 콜라보레이션한 ‘茶香…춤으로 물들다’를 선보인다.

2018 유은주 참춤 무용단 창작춤 기획 공연
206...60조 movement-
‘틈새에 핀 꽃’

일 시 7월 31일 화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유은주 010-2028-1141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을 역임한 유은주가 이끄는 유은주 참춤 무용단의 창작춤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차별과 편견에 힘들어하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그린 ‘뷰티풀 데이’와 역사 속 허구와 진실의 충돌을 그린 ‘틈새에 핀 꽃’, 단테의 ‘신곡’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단테, 길을 잃다’ 등 세 작품을 선보인다.

콘서트 | Concert

작은영화콘서트_시인과, 영화로 소통하다
위대한 개츠비

일 시 7월 17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www.bsart.or.kr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 콘서트.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장면 속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7월에는 지난 1920년대 재즈시대의 변질된 ‘미국의 꿈’과 부와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당대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예리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피츠제럴드의 동명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위대한 개츠비(미국, 1974년 제작, 상영시간 146분, 15세 관람가)’를 상영한다.

금정에 반하다
2018 인디콘서트

일 시 7월 3일-6일 화-금요일 오후 7:00,
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청소년 본인에 한해 40%,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2018 인디콘서트’.
젊음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과 서울에서 활동중인 인디 밴드를 중심으로 어쿠스틱, 모던락,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선보인다.
출연
3일(화) 오후 7:00 안병바다
4일(수) 오후 7:00 도란도란
5일(목) 오후 7:00 버닝소다
6일(금) 오후 7:00 제이비드
7일(토) 오후 5:00 가수 홍대광

영화 | Movie

21세기 거장전 2018

일 시 6월 19일(화)-7월 11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매주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20세기 거장뿐 아니라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영화감독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온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가 21세기의 젊은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특별전.

서머 스페셜 2018

일 시 7월 18일(화)-8월 19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매주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2018 사이 흠뻑쇼
<SUMMER SWAG> -부산

일 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6:42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입장료 스탠딩SR 13만2천원, 스탠딩R 12만1천원
지정석SR 13만2천원, 지정석R 12만1천원
(36개월 이상 관람가)
문의 (주)WSM 1566-5490



전 세계를 열광케 한 원조 윌드스타 싸이의 여름 브랜드 콘서트 ‘흠뻑쇼’.
뜨거운 여름, 시원한 물세례와 함께 펼쳐지는 콘서트로, 물불 안 가리는 물량공세, 역대급 스케일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싸이의 화끈한 무대, 시원한 물쇼 그리고 가열찬 폭죽으로 자타공인 여름공인 흠뻑쇼의 명성을 입증케 한다.

기타공연장

행사 | Event

라 그랑드 일루전

일 시 6월 29(금)-7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7:30 (일요일 휴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오는 7월 9일 개막하는 세계미술연맹(FISM) 세계미술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세계 최정상급 미술사들이 펼치는 미술의 향연 '라 그랑드 일루전'.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27회 세계미술챔피언십을 축하하는 사전 특별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수준의 미술사와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일류로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미술사 그리고 쇼맨들이 함께하는 매직 갈라쇼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시네바움 · 부산시네마아카데미 7월 아카데미

일 시 7월 2일(월), 3일(화), 9일(월), 10일(화), 16일(월), 17일(화), 23일(월), 24일(화), 30일(월), 31일(화) 부산시네마아카데미 · 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 ·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오후 7:30 하이쿠로 만나는 일본의 미학(8) 다카하마 교시(高浜虚子)의 하이쿠 · 환상과 현실의 경계 · 부산
3일(화) 오후 7:30 살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M. 하이데거 후기 작품 읽기
강사/이부현(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장)
9일(월) 오후 7:30 스크린에서 만난 예술가들(10) 미국의 국민시인 · 엘리자베스비숍(1)

- 강사/심진호(신라대 교양과정대학 교수)
10일(화) 오후 7:30 논어와 증오편으로 읽는 현대 사회
강사/김운산(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16일(월) 오후 2:00 무속과 민속신앙을 찾아서 '부정 풀고 술 한 잔' 함께하는 영화, 만신
강사/심상교(부산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
16일(월) 오후 7:30 영화의 바다에서 만난 문학(7) 피터 래빗의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와 영화, 미스 포터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7일(화) 오후 7:30 인문학이 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_ 영화 '매트릭스'와 동굴의 비유
강사/이동문(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23일(월) 오후 7:30 정해성의 문화공간(3) 죽음의 예술사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24일(화) 오후 7:30 가야사, 그 부활의 몸짓 _ 가락국 금관신화의 재조명
강사/유우장(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30일(월) 오후 7:30 물리학자와 함께하는 예술산책 (1) 사이와 사이의 미학
강사/이창환(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31일(화) 오후 7:30 셰익스피어 읽기 _ '맥베스', 메타포(metaphor)들의 전쟁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전 한일장신대 교수)

2018 제8회 젊음의 축제

일 시 7월 3일(화)-6일(금)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12-137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매년 건전한 청년 문화의 장을 조성하고, 발표 기회가 부족했던 대학가 예비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해온 2018 젊음의 축제.

- 3일(화)-6일(금) 젊음의 두드림전
경성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공예 전공 학생들의 작품 40여 점 전시.
5일(목) 오후 7:30 젊음, 비바체로 대학에서 국악과 클래식을 전공하고 그룹이나 앙상블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
출연/국악그룹 '탈(TAL)', 엔칸토 피아노 트리오, 콰르텟 아르디토, 앙상블 '별하'
6일(금) 오후 7:30 젊음, 樂하다
출연/부산대학교 중앙동아리 록밴드 '블루헤븐'
경성대학교 밴드동아리 '선사시대'
동명대학교 밴드동아리 '블루 파시오네'
부경대학교 록밴드 동아리 '모비딕스'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지휘자의 음악세계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 3일(661회) 앙상블 조련사 Georg Szell
10일(662회) 무대위의 신사 Carlo Maria Giulini
17일(663회) 음악 정신 분석학자 Giuseppe Sinopoli
24일(664회) 무대위의 지성인 Claudio Abbado
31일(665회)이달의 책읽기 '말하는 보르헤스'(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송병선 옮김, 민음사)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12만원(3개월 수강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부산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전 MBC PD, 시인, 음악치료사) 클래식음악해설가가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영상감상회. 해외의 클래식음악 최신 연주회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화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슈만 '아베그변주곡'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슈베르트 피아노5중주 '송어', 즉흥곡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MACBETH)' 전막감상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드뷔시 '달빛'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7월 10일(화) 오후 7:30, 11일(수) 오후 2:00, 20일(금) 오후 7:30, 23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0일(화) 오후 7:30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1강 몰다우강의 서정과 조국사랑으로 기억되는 <스메타나>

체코 민족음악의 창시자이자 체코 음악을 국제사회에 알린 최초의 작곡가로 체코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작곡가 스테

타나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 수 있는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11일(수) 오후 2:00 미술특강

빛과 색채로 가득한 자연을 따라간 <모네> 이야기

● 강사/이은미(뮤지엄 에듀케이터)

文晝酒所 동방 기획 초대 전영숙 작품전

일 시 5월 15일(화)-7월 14일(토) 문화주소 동방

문의 문화주소 동방 241-4070



2018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일본현대사진의 원류

일 시 6월 9일(토)-8월 2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munmuseum.kr

20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6강 지중해 아드리아해의 보석 크로아티아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3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제17강 세상속의 색, 그 색 속의 나-미용색채로 말하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나만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헤어컬러와 메이크업컬러는 어떤 색인지, '퍼스널컬러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로 이끌어 줄 미용색채를 만나본다.

제129회 알바트로스 詩낭송회 편지, 그리움 주제 명시 낭송회

일 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신세계안과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포코팡_포코슌에 놀러와'展

일 시 6월 28일(목)-7월 29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인기 모바일 게임 '포코팡'의 주인공 캐릭터인 분홍 토끼 '포코타'와 친구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갤러리GL 초대 개인전 서영덕 '情 이야기'

일 시 7월 1일(일)-7월 31일(화) 갤러리GL

문의 갤러리GL 207-0029



전시 | Display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I 모던과 혼성 1928-1938 II 피란수도 부산:절망 속에 핀 꽃

일 시 3월 16일(금)-7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 근대미술의 태동기인 일제시기부터 전쟁기 문화의 중심이 된 피란수도 부산까지 부산의 문화예술, 사회, 역사를 조망하는 특별전.

부산에 근현대 미술이 자리 잡은 개항 이후 일제시기와 부산의 현대적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피란수도 시기를 조명하는 개관 20주년 기념전과 부산의 1세대 서양화가 김종식 선생의 작품세계를 살펴본다.

김덕용展 '결-사이 간'

일 시 5월 26일(토)-7월 27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전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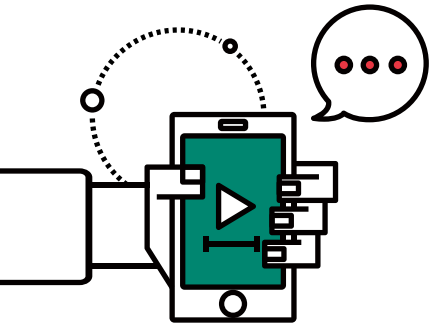
갤러리 아인 여름 기획전시 2탄 '디자이너가 살다'展

일 시 7월 3일(화)-8월 23일(목)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서울 디자인 리빙페어, 국제 공예트렌트페어 등 유명 디자인페어에서 참신함을 인정받고 국내외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 그룹 '스튜디오 이기'의 대표 디자이너 윤현진, 이정훈의 작품전.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 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6이

부산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Dance Utopia'



정다운

blog.naver.com/psjde_

너무 괜찮은 걸 봤을 때 우리는 '인생 무엇'이라 말한다. 이번 부산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댄스 유토피아'는 내게 '인생 공연'이라는 개념을 안겨준 첫 번째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날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버스도 놓치고 지도를 잘 못 봐서 왔던 길을 다시 걷는 가하면 제출할 서류를 들고 오지 않는 등 불운으로 가득찬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부산문화회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주의 항해사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면 이런 기분일까? 공연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신선했다. 내 모든 에너지를 단번에 긍정으로 바꿔주었다. 나를 완전히 매료시켰다. 공연의 중반쯤 되자 '왜 나는 여태 이걸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들의 춤선을 조금

라도 가까이에서 보지 못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아쉬움들이 생겼다. 그리고 끝내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얼마나 행인지, SNS 서포터즈를 신청한 내 자신에게 참 감사했다. 마지막 무대의 조명과 의상, 연출, 배경음악은 아름답 그 자체였다. 박소초차 치기 아까운 시간들이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들의 무대를 다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나는 이 날을 기적의 6월 1일, '기적의 601'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내 안의, 나만의 유토피아를 발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획의도 한 문장을 되뇌이고 싶다. "각자의 개성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이상향은 실현될 수 있다."

합창과의 첫 만남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더 팬텀 코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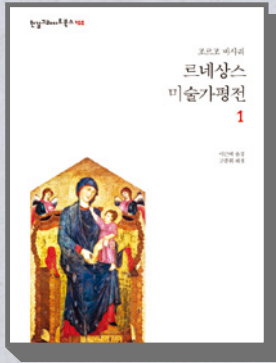
문정희

www.instagram.com/
alwayssmile_7896

평소 공연 보는 것을 즐기는 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 연주회 '더 팬텀 코러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한 적은 있지만 합창무대는 처음이라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더 팬텀 코러스'는 JTBC에서 약 2년간 인기리에 방영했던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명곡들을 남성 4중창 프로젝트였던 방송과 달리 새롭게 2중창, 혼성합창 등으로 재구성한 공연이었다. 당시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 공연 전에 미리 노래들을 찾아서 듣고 갔는데 공연을 보는 중간 중간에 익숙한 노래가 나와 공연을 더욱 즐길 수 있었다. 공연은 사랑과 이별을 주로 노래한 1부와 인생을 노래한 2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외국 가요뿐만 아니라 우리 가곡, 가요, 뮤지컬 등 구성이 다채로워서 지루하지 않았다. 웅장한 노래들을 듣

고 있으니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고 깨끗한 고음을 구사할 때면 몸에 전율이 흐르기도 했다. 많은 곡들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두 곡은 앙코르 곡으로 한번 더 불러서 두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La Vita'라는 곡과 'Look inside'라는 곡이었다. 전자의 곡은 파워풀하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해 좋았고 후자의 곡은 인생의 해답이 자신 안에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이번 합창 공연을 통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한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음악 공연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공연들이 더욱 기대된다.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 (1, 2)

조르조 바사리 지음, 이근배 옮김 / 한길사
각 648, 736p / 각 4만 5천 원

르네상스 미술을 꽃피운 위대한 미술사가 조르조 바사리(1511~1574)는 탁월한 미술사가이며 일류 건축가였고, 미술비평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가 남긴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은 13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3세기에 걸쳐 200여 명에 이르는 이탈리아 미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기술한 르네상스 미술가들의 전기다. 르네상스 시기 위대한 예술가들의 일생을 기록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서로, 서양 미술사를 통틀어 독보적인 명저로 꼽힌다. 문화사의 아버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는 이 책을 일러 “바사리가 이 책을 저술하지 않았다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가들은 아직 암흑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옮긴이 이근배 씨가 18년이라는 긴 기간 심혈을 기울여 번역했다. 르네상스 시기 미술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단순한 미술적 영역을 넘어, 역사와 사회 등 인문학적 즐거움을 안겨주는 책이다. 한양여자대학교 고종희 교수는 각 작가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다. 원서에는 없는 풍부한 컬러 도판이 실려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총6권의 역작으로 완간할 예정이다.



이야기를 그려드립니다

김은미 글, 그림 / 온다
90p / 1만원

대형마트가 점점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이 사라지고 있다. 섬세한 터치와 일상그림으로 주목받는 신예 작가 김은미 씨가 재래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아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전통적인 모습의 시장에 대해 향수를 가진 사람들과, 재래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한 감동으로 적어준다. 김은미 씨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모란시장을 매일같이 찾아가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인들 곁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편, 한편 그림으로 옮겼다. 이불 납품 중 개상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직접 장사를 시작한 이불 상인, 과수원을 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 30년째 화초를 파는 자매, 낚시를 좋아해서 아내에게 자주 혼났지만 물고기 장사를 한 뒤로 혼나지 않는다는 상인, 다섯 딸에 손주들까지 칠십 평생 아이만 키워 누구보다 여성 아동복은 잘 고르다는 30년차 아동복 상인, 시장에 오면 원하는 물건이 항상 있다는 고객... 시장 한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그림 옆에 놓인 짧은 글은 시장을 울리는 왈작한 소리들과 상인들의 꿈을 함께 들려준다.



걸그룹의 조상들

최규성 지음 / 안나푸르나
472p / 3만원

한류문화를 이끌어가는 K팝이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 많은 K팝 그룹이 노력을 해왔다. 그중에서 걸그룹에 대한 책이 나왔다. 긴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걸그룹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결과, 이 책이 탄생했다. 책에는 1935년부터 1999년까지의 걸그룹이 소개됐다. K팝 전성기 이전의 걸그룹들이다. 1935년에 ‘저고리시스터’가 활동했다. 저자는 ‘시스터’라는 이름을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한다. 저고리시스터의 리더 보컬은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가수 이난영이다. 이난영은 1953년 딸과 조카로 걸그룹 ‘김시스터즈’를 구성했다. 동양과 서양의 악기를 만능으로 다룬 김시스터즈는 미국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끈 ‘원조 한류 스타’였다. 1959년 국내를 넘어 아시아 걸그룹 최초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진출해 국제적 스타로 성장하는데, 이 활동은 2009년 미국에 진출한 ‘원더걸스’보다 50년 앞선 역사이다. 20세기 걸그룹 305팀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 시대 걸그룹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즐거움과, 수많은 모순과 편견의 시대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했던 아픔도 함께 알 수 있다.

◆ 2018년도 3분기 문화예술 아카데미 개강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획 강좌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8년도 3분기 강좌가 7월 4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특히 매 분기마다 참신한 주제의 신규강좌를 개설해온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이번 3분기 강좌에서 '셰익스피어와 오페라', '세계의 뮤지컬:프랑스편' 등 눈과 귀가 즐거운 인문·교양 강좌와 성인발레, 라인댄스 등 트렌드에 부합하는 실기강좌를 마련,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음악칼럼니스트이자 인기 오페라 강사로 활동 중인 이용숙 씨가 진행하는 신규강좌 '셰익스피어와 오페라'는 셰익스피어 걸작들을 토대로 한 영화, 연극 및 오페라 실황을 감상하며 오페라가 원작을 어떻게 변형했는지, 문학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를 비교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정규강좌에 앞서 7월 4일에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과 사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 강사 특유의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강좌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음악강좌로 특히 직장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세계의 뮤지컬'은 지난 2분기 '영국편'에 이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만난다. 공연칼럼니스트 이상훈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프랑스 뮤지컬의 전성기를 연 '노트르담 드 파리'를 비롯해 '로미오와 줄리엣', '십계', '돈주앙'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강사가 직접 현지에서 수집한 귀중한 영상과 사진자료를 통해 현장에 있는



7월 4일부터 강좌 시작,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 마감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7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생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 607-6061~4



듯한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

이밖에 1분기 처음 개설되자마자 정원 마감과 함께 높은 출석율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던 '성인발레'는 이번 강좌에서 발레의 기본 스트레칭을 통해 코어(Core) 근육을 단련시키는 '슬림 업 발레스트레칭' 강좌를 새롭게 개설하며, 미국에서 국민생활건강 댄스로 열풍을 일으킨 라인댄스는 신나는 음악과 동작으로 확실한 운동효과는 물론 재미도 함께 잡을 수 있어 이번 강좌에서도 많은 수강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강좌

매 분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존 인문학 강좌 역시 수강 열기가 뜨겁다. 2018년 총 4분기에 걸쳐 미술사의 모든 계보를 살펴보는 장원 교수의 전통미술사 수업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2분기 '근대미술 모더니즘'에 이어 3분기 '현대미술사'를 주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된 현대미술의 시작에서부터 뉴미디어아트에 이르기까지를 현대미술의 난해함을 깊이있는 해설을 통해 풀어본다. 또, 장원 교수가 2분기 강좌부터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는 '신화와 종교'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작품들이 어떻게 형성해왔는지, 시대와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들을 살펴본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강좌는 여타의 미술실기 수업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창적인 드로잉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고유의 색깔을 찾으려는 수강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찾아 답사와 미학이론을 겸비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사진작가 뿌리야 김과 함께하는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입체적인 명강의 '유혁준의 음악이야기'는 이번 강좌에서도 계속된다.

이밖에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입문과정인 '한국무용 기초'를 시작으로 중급이상의 작품반인 '무당춤', '이매방류-입춤'이 개설되어 있으며, 바이올린, 가야금, 사물놀이, 클라리넷, 해금, 클래식 기타 등 다양한 악기의 실기강좌 역시 요일별, 시간대별로 만날 수 있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교류행사 참석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7월 29일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마지막 종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산데이' 축하공연무대에 오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부산을 홍보하고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부산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중국 훈춘-백두산을 거쳐 베이징-우루무치-호르고스-알마타-아스타나-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1만1737km의 대장정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 부산의 비전을 전파해오고 있다.

김봉미 수석지휘자를 비롯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김경수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부산데이' 축하 무대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를 비롯해 부산-한국홍보관, 케이팝 콘테스트, 한국음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에 앞서 부산시립무용단은 6월 30일,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출발지이기도 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블라디보



스토크 158주년 기념의 날'에 참석해 농악 중 벵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 설장고춤과 진도복춤, 소고춤, 상모놀이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길놀이' 공연을 선보인다.

◆ 부산시립예술단 7월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7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7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이 시청, 구청,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예천

7월 3일(화) 14:00 부산진구청 대강당_합창단, 교향악단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축하공연'

7월 4일(수) 12:00 부산광역시청 로비_합창단 '로비콘서트'

7월 5일(목) 16:00 북구문화빙상센터_합창단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축하공연'

7월 13일(금) 13:00 반송노인대학_무용단 '홀로 어르신을 위한 공연'

7월 13일(금) 14:20 동아중학교 강당_교향악단

‘이용숙의 오페라’ 셰익스피어와 오페라

특 강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과 사회’

- 일 시: 7. 4 수요일
14:00 ~ 16:00 (총 1회)
- 수 강 료 : 20,000원

정규강좌

- 일 시: 7. 18 ~ 8. 29 매주 수요일
14:00 ~ 16:00 (총 6회)
- 수 강 료 : 120,000원

- 접수기간 : 6. 18(월) ~ 선착순
- 신청방법 : 홈페이지(bscc.or.kr), 전화, 방문

- 장 소 : (재)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문 의 : 전시교육팀 051) 607 - 6061~4

2018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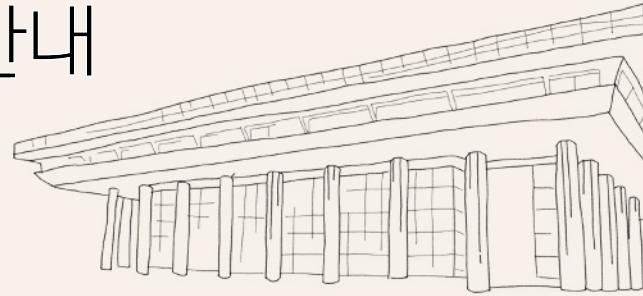
수강신청 : 6.18(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특 강 '이용숙의 오페라' 7.4 (수) 14:00-16:00 컨퍼런스홀 (수강료 : 20,000원) -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과 사회 -

인문학 · 교양						
강좌명	기간	요일 (횟수)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초급)	7.9 - 9.10	매주 월 (10회)	10:30-12:30	강의실	15	15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응용)	7.9 - 9.10	매주 월 (10회)	14:00-16:00	강의실	15	15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7.3 - 9.18	매주 화 (10회)	14:30-16:30	컨퍼런스홀	30	180,000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 신화와 종교	7.12 - 9.13	매주 목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현대미술사	7.14 - 9.15	매주 토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포트폴리오)	7.7 - 9.8	매주 토 (10회)	10:00-12:00	강의실	20	150,000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초급)	7.7 - 9.8	매주 토 (10회)	15:00-17:00	강의실	20	120,000
✳ 세계의 뮤지컬 (프랑스편)	6.30 / 7.7	매주 토 (2회)	11:00-13:00	컨퍼런스홀	50	40,000
✳ 셰익스피어와 오페라	7.18 - 8.29	매주 수 (6회)	14:00-16:00	컨퍼런스홀	50	120,000
실기 (음악 · 무용)						
바이올린 A	7.9 - 9.10	매주 월 (10회)	17:30-19:00	강의실	12	120,000
바이올린 B	7.9 - 9.10	매주 월 (10회)	19:30-21:00	강의실	12	120,000
가야금 (중급)	7.10 - 9.11	매주 화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40,000
가야금 (초급)	7.10 - 9.11	매주 화 (10회)	19:30-21:00	레슨실	12	140,000
사물놀이 (초급)	7.10 - 9.11	매주 화 (10회)	17:30-19:00	연습실	12	120,000
사물놀이 (중급)	7.10 - 9.11	매주 화 (10회)	19:30-21:00	연습실	12	120,000
✳ 한국무용 (무당춤)	7.10 - 9.11	매주 화 (10회)	15:00-16:20	연습실	20	100,000
✳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7.4 - 9.19	매주 수 (10회)	10:30-11:30	연습실	20	100,000
클라리넷 A	7.4 - 9.12	매주 수 (10회)	17:30-19:00	강의실	8	120,000
클라리넷 B	7.4 - 9.12	매주 수 (10회)	19:30-21:00	강의실	8	120,000
한국무용 (기초)	7.4 - 9.12	매주 수 (10회)	15:00-16:10	연습실	20	100,000
✳ 한국무용 (이매방류_입춤)	7.12 - 9.13	매주 목 (10회)	15:00-16:20	연습실	20	100,000
라인댄스	7.12 - 9.13	매주 목 (10회)	13:00-14:00	연습실	20	100,000
해금 (초급)	7.12 - 9.13	매주 목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20,000
해금 (중급)	7.12 - 9.13	매주 목 (10회)	17:30-19:00	강의실	12	120,000
해금 (고급)	7.12 - 9.13	매주 목 (10회)	19:30-21:00	강의실	12	120,000
클래식 기타 (중급)	7.13 - 9.21	매주 금 (10회)	14:00-15:30	강의실	15	120,000
클래식 기타 (초급)	7.13 - 9.21	매주 금 (10회)	16:00-17:30	강의실	15	120,000
프리미엄 발레	7.13 - 9.21	매주 금 (10회)	14:00-15:00	연습실	20	100,000

✳ 신규강좌 ※ 강좌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V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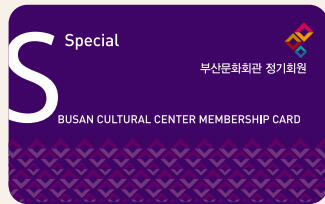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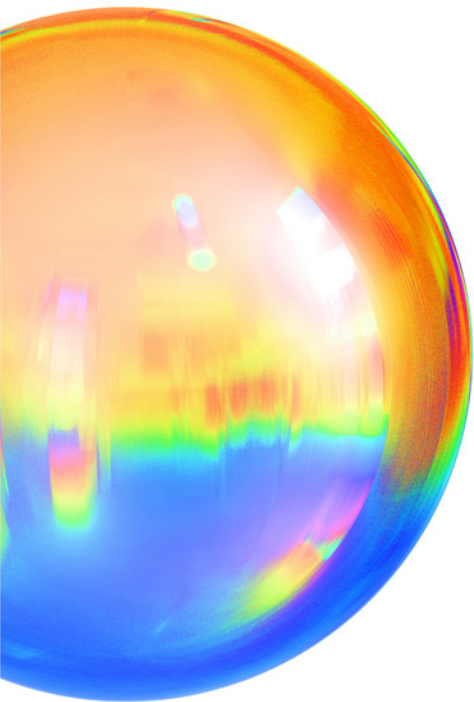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월 2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변애영을 비롯해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 '거장, 거장을 만나다' [종료]

3월 14일(수)-1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연주 : 주희성, 파스칼 드바이옹, 노경원, 김영호, 이마주

최백호의 청춘 콘서트 [종료]

5월 12일(토) 14:00, 1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 이 시대 최고의 젊은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노래하고 싶어하는 가수 최백호의 특별한 무대.
(S석에 한해 1인 2매 예약가능, 각 공연당 50좌석 선착순)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5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종료]

6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 무대의 차세대 디바 손지혜의 듀오무대.

미하일 플레트네프&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종료]

6월 27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김옥련 발레단 발레컬 '운수좋은 날' 예약중

7월 17일(화) 오후 2:00, 18일(수) 오후 2:00, 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인 4매, 회당 40매 선착순)

현진건 원작소설 '운수좋은 날'을 발레와 연극, 노래, 현대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탄생시킨 발레컬 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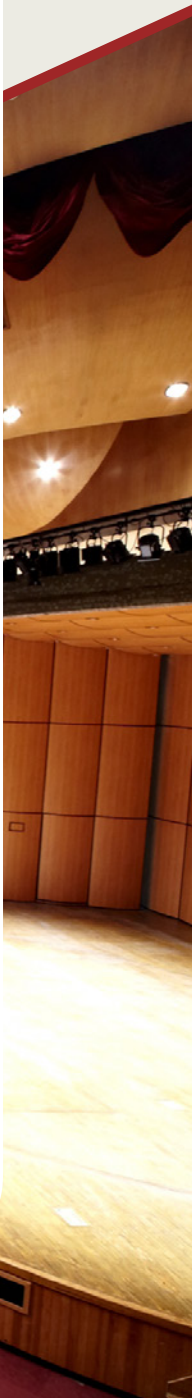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명아 르네상스피부와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 2018년 6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예술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부회장 도용복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도용복 부회장은 공식 직함인 (주)사라토가 회장 외에도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다. 후원회의 변원탄 부회장과 더불어 부산국제합창제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사)부산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 뉴월드 오케스트라 단장, 부산재즈클럽 고문, 시인이자 오지탐험가, 주한 엘살바도르 명예영사, 그리고 ‘문화와 여행’을 이야기하며 전국을 누비는 인기강사이다. 그의 직함 속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삶과 그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예술이 담겨져 있다. 특유의 명민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그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잘 수 없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좋아하는 음악과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음악DJ, 합창단원, 중창단 지휘자, 음악회 해설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가져왔다. 20여 년 전에는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유학하던 딸의 소개로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사사한 적이 있다는 도용복 회장은

은 2011년에는 부산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린 오페라 ‘나비부인’에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도용복 회장 하면 바로 빼놓을 수 없는 직함이 오지여행가이다. 지난 25년간 170여개국을 다니며 여행을 통해 직접 겪었던 경험을 적은 여행서적을 4권이나 출판하기도 한 그는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만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준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언론인연합회가 선정한 ‘제4회 대한민국 나눔 봉사대상(기아나눔)’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소 명심보감에 나오는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을 쌓는 이에게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말을 믿는다는 도용복 회장은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예술인을 돕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내년이면 벌써 77세 희수(喜壽)라는 도용복 회장, 그는 내년 7월 7일 영화의전당에서 777명을 초청, 음악을 전공한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특별한 가족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다양한 도네이션 활동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부회장 변원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부회장으로 있는 양산 병원 변원탄 이사장은 지역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 의이지만 부산 문화계에서는 지역의 합창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예술인으로 더욱 유명하다. 오랫동안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음악이 삶에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는 음악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올해로 벌써 14회를 맞는 부산국제합창제 조직위원장을 지난 2011년부터 맡아 부산국제합창제를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세계인의 합창축제로 자리매김케 한 변원탄 이사장은 2015년부터는 (사)송인문화재단을 설립, 자신이 좋아하는 합창은 물론 기악과 성악, 오페라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활동을 지원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적 활동의 모태가 된 오랜 전통의 노엘합창단을 비롯해 남성성악가 100명이 매년 한자리에 모이는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소년소

녀합창단을 운영하며 노래하는 사회 만들기애 주력하고 있다. 가장 좋은 음악적 환경으로 ‘훌륭한 시설과 연주자, 준비된 청중’이라 꿈은 변원탄 이사장은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도네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그의 열정으로 탄생한 모임이 바로 ‘부산 합창 사랑’, 현재 3,000여명 가까운 회원들은 합창 공연이 있을 때마다 준비된 청중으로 공연장을 찾는다. 앞으로는 합창에서 기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활동 역시 부산을 음악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그의 열정의 발로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주변에 후원회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변원탄 이사장은 대한정신병원협회 회장,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부산·경남지부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UCLA대학 정신과 교환교수,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외래교수를 지낸 바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교실 밖에서 만나는 즐겁고 재미있는 음악세상



- 지휘**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피아노** 이영옥
- 지도** 노금선(안무), 노민지(성악)
- 해설** 정두환(음악평론가)
- 특별출연** 홍종건(객원지휘, 카시아싱어즈 지휘자)
문동환(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최춘식(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정선희(판소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송강수(고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조희규(해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찬조출연** 오륙도초등학교 합주단(지도/여대현)

2018. 7. 13(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7. 14(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 **균일 2,000원**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607-3170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협찬 | 와이비엠



Balletral
발레컬
A LUCKY DAY



인생은 바로
인생은 바로



2018. 7. 17 화요일 2 PM

7. 18 수요일 2 PM / 8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및 예매 |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T 051. 630. 5200 인터파크 티켓 www.ticketpark.com T 1544. 1555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시민회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할인 | 60% 학생단체 20인 이상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본인 50% 장애인(1~3급 _ 동반 1인 / 4~6급 _ 본인), 국가 / 독립유공자 본인 ·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본인), 초, 중, 고, 대학생(본인)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유료회원), 단체 10인 이상·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등재가족),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본인)



NAVER TV



FACEBOOK



GOD DESIGN
산업자원부 선정



it Award



꼬등어의 상상력으로 일상에 감각을 입히다

DESIGN IV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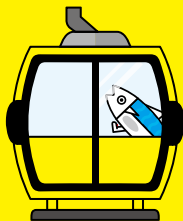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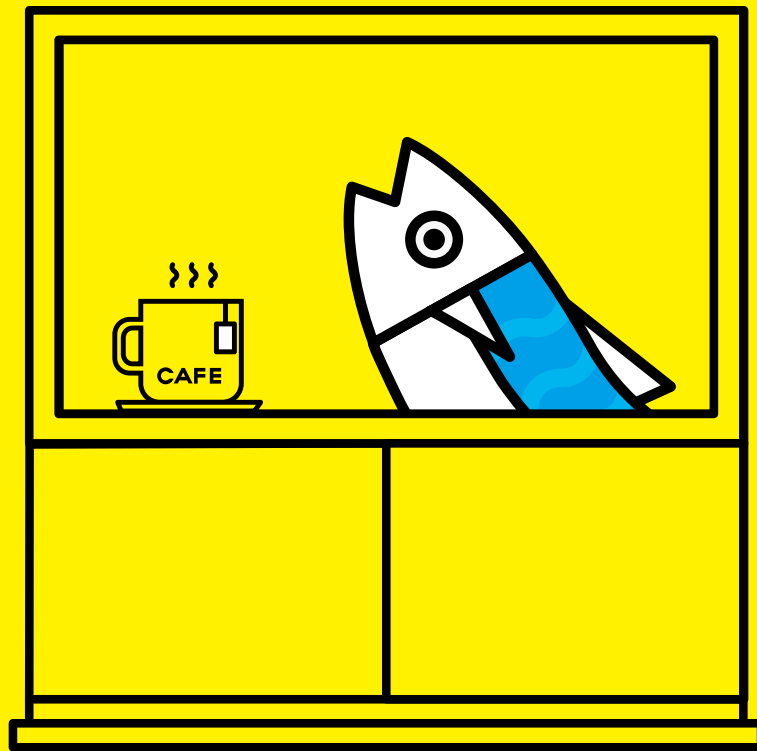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입니다.

www.designiv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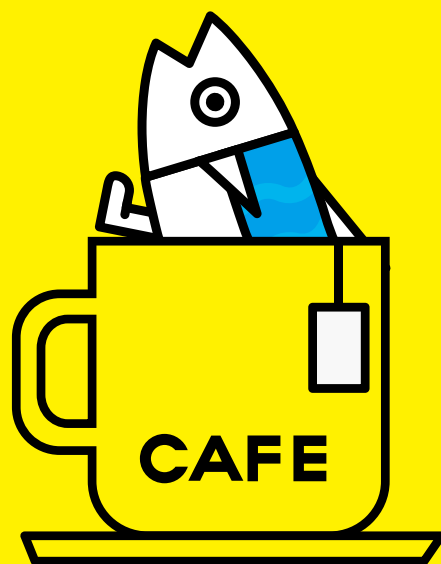
CAFE GGO DEUNG O

2018.05

GRAND O/P/E/N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매표소 내 꼬등어 카페 5월 오픈!



COMING SOON ◌



발레리노 김용걸과 함께하는

Summer Ballet Festival



예술감독 배주윤
(볼쇼이발레단 솔리스트)



김용걸



김지영



김현웅



이승현



최영규



권세현



원진호



김다운



정재은



최원준



강호현



윤별

2018. 8. 4(토) - 5(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 **BNK**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2018. **8.15.** WED - **30.** THU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8 BSCC Chamber Festival

- | | | |
|--------------------|-------------------|--------------------|
| 15 WED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 | 23 THU 센토챔버소사이어티 | 27 MON 부산신포니에타 |
| 16 THU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 24 FRI 코리아비르투오지 | 28 TUE 프로이데 스트링 콰텟 |
| 17 FRI 올라 비올라 | 25 SAT 예일양상블플레이어스 | 30 THU 무지카비바 |
| 18 SAT 서울비르투오지 | 26 SUN 양상블 코스모폴리탄 | |